

학생들 손쉽게 증명서 발급… 교내 재정은 타들어갔다

낮은 기회비용에 따라 자동증명발급기 설치 결정

인터넷증명발급센터·발급기 3대, 年 유지비용 1200만원

재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됐던 자동증명발급기가 예산상의 문제로 오는 26일 중지된다.

학사과는 “작년 6월부터 하영드리미를 통해 증명서 발급을 무료로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기계 이용 빈도가 낮아져 철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2012년 자동발급기=74.5%, 창구발급=25.5% △2013년 자동발급기=

84.1%, 창구 발급=15.9%의 높은 기기 이용률을 선보였다. 하지만 작년 자동증명발급기 이용 수치는 47.9%에 머물렀다. 또한 인터넷무료발급은 39.6%, 창구발급은 12.5%를 기록했다.

교육부에서 제정한 증명서 수수료 규칙 제2조에 따르면, 국립학교의 경우 증명서 1통 발급시 국문 300원 및 영문 600원으로 제한돼 있다. 자동증명발급기 한 대의 1년 유

지 비용이 약 264만원임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학사과의 입장이다.

작년 6월부터 무료 증명서 발급을 위해 구축했던 인터넷증명발급센터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홈페이지 설립 후 1년간 무료로 A/S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오는 6월 1일 기간이 만료된다. 연간 유지 비용은 약 400만원이다.

예산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자동증명발급기는 구매 날짜를 기준으로 5년이 지나면 새로 교체해야 한다. 현금만을 취급하는 기계 기준으로 발생되는 예상 비용은 2140만원이다. 또한 카드 결제를 담당하는 기기 교체 비용은 1100만원이다.

자동증명발급기는 △재학 △성적 △수료 △재적 △교육비납입 등 각종 증명서를 관리자 없이 출력 가능하다. 현재 아라캠퍼스 2대(현금·카드 결제) 및 사라캠퍼스 1대(현금 결제)로 총 3대가 설치돼있다.

이 가운데 현금 결제 기기 2대는 2008년에 구입해 사용 기간이 6년에 도달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비용이 부담이 돼 아직까지 교체를 못한 상태다.

결국 학사과는 지난 4월 20일 So아라 총학생회(회장 원일권 영어영문학과 4)의 동의를 얻어 3대 모두 철거를 결정했다.

증명기들은 본관 종합서비스센터에 이관될 예정이며 추후 다시 설치할 계획은 아직 미정이다.

학사와 조연희 학적팀장은 “2008년 당시 교대통합이 이뤄져 통합자금이라는 명목의 별도 예산이 존재했다”며 “이 자금을 활용해 자동증명발급기를 구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대학을 운영하기 위한 실질적 자금은 기성회비 밖에 없는데 이를 낭비해선 안된다”며 “여러가지 기회비용을 따져보니 기기 유지 대신 학생들의 복지혜택을 위해 예산을 쓰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일부 학생들은 증명기 발급 중지에도 대해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일권 총학생회장은 “종합서비스센터와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공고문을 지속적으로 붙이고 알리겠다”며 “근무시간 외 센터를 방문하는 학생들을 위해 당직실에 프린터를 설치해 인쇄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백승규 기자

행방불명된 모바일 학생증

신입생 아직 학생증 없어

지난 1일 이미 배포됐어야

모바일 학생증 발급이 기존 약속했던 날짜에 발급되지 않아 신입생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모바일 학생증은 학생들의 스마트폰 소유 증가와 예산절감의 이유로 올해 2015년부터 시행돼 5월 1일부터 학생들에게 배포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학생증은 발급되지 않았고 학생들에게는 어떤 공지도 전달되지 않았다.

발급시기가 늦어진 이유는 모바일 학생증 제작을 담당하는 업체를 입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실제 입찰이 이뤄지고 난 후 양측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두 번의 유찰이 발생했다.

이에 도서관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조에 의해 수의계약을 선택했다. 27조 1항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 밖에 없음이 명백히 인정될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김해건 기자

수의계약을 통해 임의로 업체를 선택한 도서관은 결국 기존의 계획보다 한 달의 시간이 지연돼 도서관은 학생들과의 약속을 어리게 됐다.

김동규(정치외교학과 1)씨는 “대학에 입학한지 어느 덧 한 학기가 돼 간다”며 “학생증이 없어 제휴업체 할인을 받을 때 하영드리미로 인증을 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1일부터 모바일 학생증을 발급하겠다고 전달받았는데 언제 시행되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도서관은 제작업체에 재학생 외에 졸업생이나 연구원들도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뢰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 기존 대상 외에 지원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했다고 밝혀졌다. 또한 서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도서관 허정임 수서기획팀장은 “다행히 지금은 계약이 완료돼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며 “안드로이드와 ios 버전의 모바일 학생증을 6월말까지는 안정적으로 배포해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우리 손으로 직접 그리는 제주대

학생 총 400명 붓 들어

7080시대 테마토 봉사 진행

소공녀 총여학생회·12개의 단과대학·KT&G 대학생 봉사단이 지난 2일 대운동장 벽화 봉사활동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벽화 봉사의 주제는 ‘시간은 흘러도 계절은 변하지 않는다’이다.

총 4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한 이번 활동은 인원만큼이나 큰 의미가 담겨 있다.

김수윤(환경공학과 3) 부총여학생회장은 “봄에서 겨울까지 가는 과정을 벽화에 색으로 나타냈다”며 “학생들 손으로 벽화를 직접 꾸미게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두가 참여하는데 의미를 두고 싶다”고 덧붙였다.

작년에 진행된 벽화 봉사활동은 본부식양 옆 부분까지였지만 올해는 나후된 모든 벽면이 진행되었다.

벽화봉사에에는 컨셉7080도 함께 진행되었다. 7080은 추억의 간식 제공과 DJ를



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벽화를 그리고 있다.

통한 사연전하기 코너로 이뤄졌으며 고된 봉사 일에 재미를 더해주기 위해 진행됐다.

중간 중간에 아폴로나 쏘니디 등의 추억의 간식을 파는 수레가 왔다가기도 하고 봉사자들의 사연이 담긴 노래가 DJ를 통해 전해졌다.

봉사에 참여한 서명규(식품영양학과 1)씨는 “음량이 작았지만 사연이 담긴 레진청은 재미 있었다”고 말했다.

이소윤 수습기자

후기 대학원 특별전형 신입생 총 137명 모집… 26일부터 실시

일반전형과 달리 대학 성적·면접 고사 점수 함께 고려

2015학년도 후기 대학원 특별전형 신입생을 오는 26일부터 4일간 모집한다.

이번 특별전형은 기존 필기고사가 있는 일반전형과는 달리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서 전적대학 성적과 면접 고사 점수 합산으로 선발한다. 또한 미술·음악학과와 같은 예체능 관련 학과 모집은 실기 평가와 함께 진행된다.

모집 학위 과정은 △일반과정(인문사회·

자연과학·이공·공학·예체능·의학계열) △학과·연구기관 협동과정 △학과 간 협동과정이다.

학과 간 협동과정은 기존 학과의 커리큘럼을 조합한 융합학과로 구성돼 있다.

모집인원은 △석사과정 78명 △박사과정 53명 △석·박사통합과정 6명 등 총 137명이다.

원서접수는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

ibsi.jejunu.ac.kr) 또는 원서접수 대행사 홈페이지(http://www.uwayapply.com)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한편 학·연 협동과정은 연구소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만 지원이 가능하다.

최초 합격자 발표는 7월 3일이다.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생기는 충원 합격자는 7월 14일부터 7일간 입학 홈페이지에 발표된다.

기타 자세한 입학전형 정보는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문의=제주대학교 입학관리과 ☎754-3991

임세환 수습 기자

관광발전 위한 협약 맺어

관광융합소프트웨어 인력양성사업단(단장 김근형 경영정보학과 교수)과 제주올레(이사장 서명숙)는 6일 경상대 2호관 세미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제주관광 발전과 관광인재 육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관광융합소프트웨어 인력양성사업단은 2014년부터 관광지식과 소프트웨어 개발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다.

한편 제주올레는 제주도를 생태와 도보여행의 대표적 명소로 자리잡도록 하면서 생태녹색여행의 중심으로 변모시켰다.

백승규 기자

2015 영화로 만나는 재일동포

재일동포 100년 애환의 삶과 역사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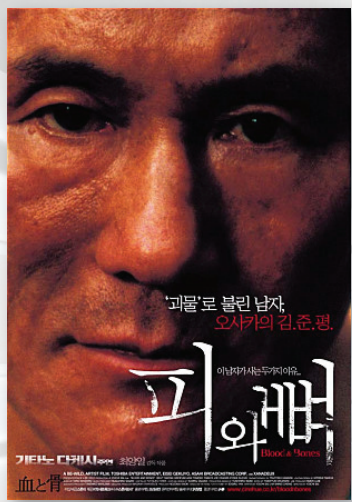
주최 :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장소 : 제주대학교 문화교류관 2층 시청각실



굿바이,평양

감독 양영희
상영시간 81분

30년간 평양과 오사카에 떨어져 살아야했던 가족



피와 뼈

감독 최양일
상영시간 142분

제주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남자의 일대기



우리학교

감독 김명준
상영시간 131분

일본 조선학교 아이들의 희망다큐



박치기

감독 이즈츠 가즈유키
상영시간 119분

조선고학생과 일본 학생간의 좌충우돌 스토리

5월 19일(화) 오전 11시, 오후 4시

5월 20일(수) 오후 1시 30분

5월 21일(목) 오후 4시

5월 22일(금) 오전 9시

※무료상영, 다과제공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Center for ZAINICHI JEJU People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TEL : 064-754-3976

사설

체계적인 통섭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애플의 전설적인 CEO였던 스티브잡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애플의 DNA는 기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애플의 기술은 인문학과 결합하여 우리 심장이 노래하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기술(Technology)과 인문학(Liberal Arts)의 교차점에서 혁신이 나온다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는 당면한 문제들로 산적해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통합적이고 창조적인 대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 까닭에 지식의 통섭(consilience)은 시대적 트렌드가 되었다. 취업시장에서는 ‘통섭형 인재’가 대세로 떠오르고, 교육환경도 ‘통섭형 인재’ 양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식의 통섭이 필요한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도정일 교수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다. 그 이유로 인간은 이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하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존재라는 점을 든다.

인간은 자주적이고 사회적인 존재다. 자주적인 존재로서 나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사회적인 존재로서 서로 더불어 살아야 한다. 그게 인간 실존의 모습이다. 그러한 인간 실존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문적 소양과 과학적 사고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이는 지식의 통섭을 통해 가능해진다.

나아가 평생직장의 소멸과 지식수명의 단축도 지식의 통섭이 필요한 이유다. 미래학자들은 지금의 대학생들은 평생 동안 직장을 여러 차례 바꾸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대학은 첫 직장을 얻는데 필

요한 지식만 가르치고 있다. 또한 사회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지식의 수명이 나날이 짧아지고 있다. 그 결과 대학에서 배운 지식은 기껏해야 몇 년밖에 써먹지 못한다. 따라서 이제는 기존의 지식을 연결·통합하여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주대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통섭형 인재를 배출하는 요람으로 거듭나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그 존재의 이유와 정당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대학교가 통섭형 인재의 요람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고 종합적인 고찰이 필요하겠지만 우선은 종교와 철학, 심리학, 역사학, 천문학, 물리학, 생물학 등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통섭 교과과정을 개설하고 전 학생으로 하여금 필수적으로 수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교와 철학, 심리학, 역사학 등은 인문적 소양을 쌓는데 기초를 이루며 천문학, 물리학, 생물학 등은 과학적 사고를 갖게 하는 바탕이 된다.

또한 이러한 교과과정은 단순한 지식 습득 차원을 넘어 인성 함양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래야 인문적 소양과 과학적 사고를 아울러 갖춘 통섭형 인재들이 배출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제주대가 체계적인 통섭교과과정을 계기로 통섭형 인재들의 요람으로 우뚝 서게 된다면 아시아의 명문, 세계의 중심이라는 제주대학교의 비전도 성큼 다가올 것이다.

대학 내 기부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

지난 3월 1일 제주대학교 생활소비협동조합(이하 생협)이 사라캠퍼스에서 식당, 매점, 카페테리아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의 타당성 문제로 생협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가 여러 번 있었으나, 그 때마다 사라캠퍼스 생협은 기대 이상의 판매 실적과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생협 유치 이후 사라캠퍼스 구성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부 활동이 확산되고 있다. 처음 기부 활동은 식당, 매점, 카페테리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 자리에서 소박하게 시작되었으나, 점차 다양한 기부 활동으로 변져가고 있다.

우선, 학생들이 자원봉사와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기부에 참여하고 있다. 생협식당에는 매일 식당 운영에 도움을 주는 학생 기부 천사가 있다. 강의가 없는 공강 시간에 이들은 식탁 닦기, 의자 밑에 넣기, 식권 받기, 소진된 반찬 알러주기 등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또 학생들은 생협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이를 하나씩 실천에 옮기고 있다. 얼마 전 공모를 통해 생협 매점과 카페테리아 이름을 ‘소담소담’으로 결정하고, 식당 퇴식구에 버려지는 잔반을 줄이기 위해 재학생의 식당 메뉴 선호도를 조사해 그 결과를 영양사에게 제공하였다.

교수와 직원들의 기부 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생협 사업장 공간 디자인하기, 생협 앱 개발하기, 자동화인 식권 투입함 제작하기, 생협 만족도 설문조사와 분석 자료 제공하기, 도서 기증하기, 식당 시스템 모니터링하기, 대형컵홀더 제작하기, 연젤커피 운영하기, 학생들의 생협 아이디어 공모 상품용 식권 기부하기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부 활동은 생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구성원의 노력이 자신의 전공 분야와 접목된 결과이자, 대학 내 기부 문화가 확산된 결과이다.

‘진정한’ 변혁은 ‘작은’ 사건에서 시작되어 오랜 시간을 두고 ‘변져가는’ 것이다. 작은 사건이 변혁의 씨앗이 되고 그 울림이 주변으로 변져 나아갈 때, 그 사건은 이미 ‘거대한’ 변혁의 밑알이 된 것이다. 사라캠퍼스 생협 유치라는 ‘작은’ 사건에서 시작된 대학 내 기부 문화가 오랜 시간을 두고 ‘변져가기’를 기대한다.

‘벌써부터 여름 걱정’… 무더운 사라캠 생활관

5년 전 에어컨 설치 약속했으나 감감 무소식
기숙사 포기 후 울며 겨자먹기로 자취 선택해

사라캠퍼스 학생생활관 내 에어컨이 없어 학생들의 불만이 커져만 가고 있다.

2010년 9월 인터뷰 당시(839호) ‘학생들의 여름철 편의를 위해 내년 에 에어컨을 설치할 계획’이라는 학교 관계자의 약속과 달리 5년 동안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재 사라캠퍼스 학생생활관은 100명이 생활하고 있지만 더위를 해결할 에어컨은 커녕 선풍기조차도 없는 실정이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 학생들은 종일

창문을 열어놓고 선풍기를 손수 구입하고 있는 형편이다. 임용공부를 준비하고 있는 4학년 학생들의 불만은 더 크다.

익명을 요구한 A(초등교육학과 4)씨는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밤에 잠을 잘 때 빼고는 생활관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고 가끔씩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며 “잠이 안 올 정도로 더워 잠을 잘 못자는 경우가 있어 임용공부에도 불편함을 느낀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 학기 사라캠퍼스 생활관에는

114만 3000원이다. 그 중 급식비, 입사비를 제외한 관리비는 43만3000원이다. 아라캠퍼스 생활관 관리비는 평균 40만2720원(BTL 제외)이다. 아라캠퍼스 생활관의 모든 방에는 에어컨이 설치돼 있다.

사라캠퍼스 생활관은 더 많은 관리비를 내면서도 오히려 낙후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라캠퍼스의 경우 입학정원의 반 이상이 타 지역 학생이다. 타 지역 학생의 입학정원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학생들의 경우 생활관 생활을 하거나 자취를 할 수밖에 없다.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활관에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생활할 뿐이다. 편의상 아라캠퍼스 생활관에

입주하기엔 통학 거리가 멀어 학생들의 근심은 커져만 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B(초등교육학과 2)씨는 “학생생활관 내 에어컨이 없어 너무 불편해 다음 학기부터는 어쩔 수 없이 자취를 할 예정”이라며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서 대학당국이 학생의 주거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대의 학생생활관도 학생들의 항의가 빗발쳐 최근 에어컨을 설치했다. 전국 국립대 중 기숙사에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우리 대학을 제외하고선 찾아보기 힘들다.

에어컨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선 학생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찬우 기자

‘스피치 비법’ 소개하는 교육 열려… 논리 중요성 강조

정확한 전달력 위한 발표 3요소 제시해

“발표 비중 높은 조별 과제시 큰 도움될 것”

“누가 들을 것인가, 어떤 메시지를 남길 것인가를 명확하게 안다면 누구나 발표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기초교양교육원(원장 정승달 수학과 교수)이 운영하는 ‘찾아가는 학습법’이 8일 한라대학교 금호미래관 4층에서 열렸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달력 있는 스피치 비법’이라는 주제로 도내 3개 대학(제주대, 한라대, 관광대)학생들을 위해 마련됐다.

이도원(인브리프 커뮤니케이션 대표)씨는 학생들에게 △메시지를 만

들어라 △논리적 구성으로 전달력을 높여라 △바로 이해할 수 있게 하라 등의 주제로 발표의 3요소를 설명했다.

◇메시지를 만들어라 “듣는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먼저 파악하십시오”라며 이도원 대표는 발표의 첫 운을 뗐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발표를 듣는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등 청중을 파악하는 법을 설명했다. 또한 그는 적절한 예시

를 들어 발표를 진행한다면 듣는 사람의 이목을 끌 수 있다고 밝혔다.

◇논리적 구성으로 전달력을 높여라 이도원 대표는 두 번째 주제에 앞서 스티븐잡스, 링컨 등 달변가들의 공통점을 설명했다. 그가 제시한 공통점은 그들이 다양한 주제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메시지 한 가지로써 말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말을 전달할 때 우선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파트별 시간을 나눠서 한다면 전달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바로 이해할 수 있게 하라

이어 이 대표는 어려운 통계수치는 쉽게 표현하고 잘게 쪼개질수록 이해

력이 높아진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학생들에게 스토리텔링을 활용하는 법, 사실과 주장을 발표하는 법 등을 설명했다.

전경진(전기공학과 4) 학생은 “발표가 있는 조별과제를 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며 “앞으로는 이런 방법을 통해 발표를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기초교양교육원이 마련한 6번째 프로그램이었으며 그동안 포트폴리오 작성법, 시간경영법 등 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다음 교육은 오는 21일 ‘성공적인 시험대비 전략’이라는 주제로 제주대에서 열릴 계획이다. 김해건 기자

제주대-강소대, 인식의 폭 확장 위해 협정 체결

제주대(총장 허항진)는 중국 강소대(총장 원수기)와 4월 본관 총장 접견실에서 학생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양 대학은 협약을 통해 △교류수 학생 매학기 5명 이내 선발 △교류수 학생 수용대량 등록금 면제 △교류

수학생 기숙사 알선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선발된 교류 학생은 오는 9월 중 한학기 또는 일년 동안 파견된다. 또한 선발 기준은 HSK 중국어 능력시험 합격에 따라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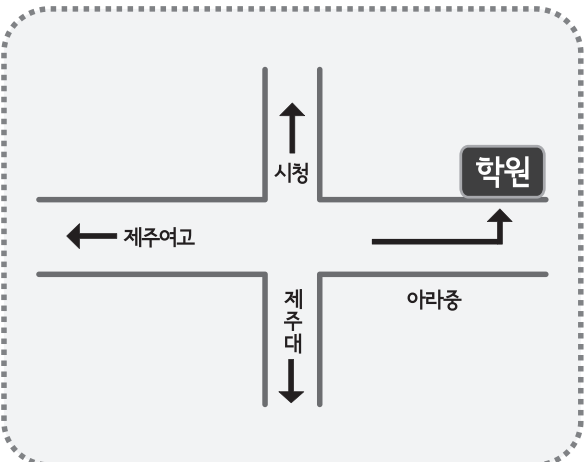
심소연 수습기자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항진 편집인·주관 최낙진 편집국장 백승규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하로 102 전화(안내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미디어<JUMP> news.jejuu.ac.kr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 매일 학원 자체 운전면허 시험 실시
- ▶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학원 셔틀 운행
- ▶ 주말교육가능
- ▶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학원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시인·소설가 등용문”
제35회 백록문학상 현상 공모

제주대신문이 창간 61주년을 맞이하여,
제35회 백록문학상을 현상공모합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
- 응모분야 : 시(1인 5편 이상) 또는 단편소설(1인 1편)
- 접수마감일시 : 2015년 5월 22일(금) 17:00까지
- 접수장소 : 신문방송사 행정실(취업전략본부 3층)
* 백록문학상 응모시 출력 원고를 동시에 접수하며, 반드시 원본파일을 E-mail : press@jejunu.ac.kr로 제출해야 함.
* 원본파일은 본인 이름과 학과 등의 파일명으로 제출바랍니다.
* 문의처 : 신문방송사 행정실 Tel. 754-2282
- 발표 : 제주대신문 939호(2015년 6월 3일(수)) 발행 예정)
- 시상내역 : 시 당선작 - 상금 50만원 및 총장상
단편소설 당선작 - 상금 70만원 및 총장상
* 당선작이 없을 경우 기작을 선정할 수 있으며, 기작 상금은 당선 상금의 절반으로 함.

제주대신문

2015년도 예비군훈련 공고

2015년도 예비군훈련(향방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2015. 05.

제주대학교총장

- 훈련기간 : 2015. 6. 22(월) ~ 6. 30(화) (토,일요일 제외)
- 장 소 : 제920여병대 예비군훈련장 (제주시)
- 훈련대상 : 전역1-6년차 편상자 전원 (예규구분 없음)
- 교육훈련 일자 및 학급편성

일 자	대학별	학 과 별	연원(명)	계학원원(명)
5. 21(토)~5. 31(일)	이월자/신척자	2014년도 훈련 이월자 및 동일예비군 신척자	42	42
6. 22(월)	자연과학대학	전 학 과	210	390
	생명자원과학대학	전 학 과	180	
6. 23(화)	인문대학	전 학 과	222	379
	사회과학대학	전 학 과	157	
6. 24(수)	국과대학B	전기국과과 / 식목생명국과과 / 권투팀국과과 / 생명장학국과과	228	378
	사범대학	전 학 과	150	
6. 25(목)	국과대학A	건축국과과/건축학과/기계국과과/ 기계로봇국과과 / 통신국과과/에너지국과과/전자국과과	369	369
	경상대학A	경영정보학과/무역학과/관광개발학과	139	376
6. 26(금)	이송디자인대학	전 학 과	54	
	대학원/외국대학	전대학원/외국대학/교수	183	
6. 29(일)	경상대학B	경영학과/관광경영학과/ 경영학과 / 회계학과 / 회계학과(야)	360	360
	해양과학대학	전 학 과	303	
6. 30(화)	수업과/간호대학	전 학 과	23/7	
	법정/교육대학	전 학 과	12/23	368
총 계				2,662

※ 교육훈련대상자 명부 (소속대학 학부(과) 열람)
5. 유의사항

- 가. 훈련은 소속대학별 훈련 해당일자에 제주시 연동 정실훈련장으로 참석바랍니다. (불참자는 보충교육 참석. 단, 보충훈련장소는 대정을 모듬도(91여병대)입니다.)
- 나. 훈련 당일 09:00까지 시간엄수 개별일소
※ 09:00시 이후 도착자는 무단불참 처리됨(2015년도1월시행)
- 다. 중식 제공(도시락 지참자는 중식비(6,000원) 지급 및 교통비(6,000원)지급
※ 단체 도시락은 반입 할 수 없음(식중독 발생 우려)
- 라. 예비군복 착용(규정된 복장 착용)
- 마.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운전면허증) 필기구 반드시 지참.
- 바. 정당한 사유(실습)로 인하여 훈련연기 및 훈련일자 변경을 원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2015. 6. 12일까지 예비군연대에서 연기신청 바랍니다.
-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비군연대(구내754-2288~9)로 문의 바랍니다. 끝.

위험과 불편을 실은 심야버스

늦은 시간까지 공부한 학생들 위한 버스는 滿員

〈만원〉

오후 11시 45분 중앙도서관 앞. 공부를 끝낸 학생들이 서서히 모이기 시작했다. 도서관 시계 바늘이 정각을 향할 땐 60여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잠시 후 버스가 도착하자 기다리던 학생들은 버스로 우르르 몰려갔다. 기사 아저씨는 “더 뒤로! 더 뒤로!”를 반복했고 학생들은 남은 공간을 찾아 들어갔다. 60여명의 학생들이 계단까지 꾸역꾸역 타자 이윽고 버스가 출발했다.

딱 들어찬 버스는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무게에 못 이겨 앞뒤로 심하게 출렁거렸다. 기사 아저씨는 혹여 사고라도 날까봐 제대 입구 사거리까지 약 시속20km를 유지하며 운행했다. “아직도 제대야?” 한 학생이 창문 밖을 보고 말했다. 자동차로 보통 3~5분 걸리는 거리를 9분이 걸려간 것이다.

5월7일 목요일의 일이었다. 인문대학 소속 한 학생(24)는 버스에 사람이 가득 차 서서가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밝혔다.

그는 “매일 심야버스를 이용하는 편인데 조금 늦게오면 서서 타는 것은 물론이고 계단 입구에 서서 가기도 하고 심지어 시험기간이 아님에도 못할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본지는 5월7일에서 11일까지 심야버스 이용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버스 이용 빈도와 불편 사항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버스에 사람이 가득 차서 타지 못 한 적이 있다’는 학생이 40%(20명)에 달했다. 반면 ‘심야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이 없다’고 답한 학생은 10%(5명)에 불과했다.

불편 사항에 대한 질문(중복 응답)에서는 ‘열 사람과 간격이 좁아 좌석에 앉지 못해 불편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원 초과로 버스에 타지 못해 불편하다’가 13명, ‘많은 노선이 없어 불편하다’가 12명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안전 문제도 제기됐다. 정원 39명인 버스는 60명 이상의 학생들을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정원 초과에 대한 제한을 도로교통법 39조 1항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정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있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친 학생들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만원 버스에 탑승해 귀가하고 있다.

시행령 22조 1항에 의하면 ‘자동차(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심야버스는 최대 154%에 달하는 인원을 수용해 기준치 110%를 훨씬 초과한다.

이병철 제주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법적금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하며 현장에서 경찰관이 인지하게 되면 하차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당연히 안전을 위

해서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고 이 경우는 위험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하나고속 측에 경고 차원의 행정 지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표성철 총무과 실무관은 “안전 문제에 대해서 유감이지만 예산과 업체와 계약한 사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증차는 사실상 못한다”며 “매일 학생 수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추가 배차를 원한다면 학생복지과와 총학생회가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지민 기자

>> 네팔 지진 피해자 특별 인터뷰

“학생들의 사랑에 깊은 감사를”

지난 4월 25일 7.8 규모의 강진이 네팔을 강타했다. 이 지진으로 7000여명이 목숨을 잃었고 14000여명이 크고 작은 상상을 입었다. 이 가슴 아픈 참사에 보탬되고자 네팔에서 온 유학생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Shreedmar Devkota(생명화학공학과 박사과정), Pradeep Adhikari(생명공학부 박사과정), Suresh Rai(에너지공학과 박사과정), Krishna Bhandari(한국어과정)가 그 주인공들이다. 네팔 대지진 이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현재까지 얼마의 모금액이 모였나

계속 모금 중에 있다. 교수와 학생 등 많이 사람들이 현재까지 쾌척한 금액은 약 420만원이다.

Q. 이 정도로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나?

네팔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다. 수 천명이 죽었고 그것들을 보고 우리는 슬픔을 감출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국제교류 본부에 도움을 요청했고 유학생회, 총학생회 등 과 연결되어 모금활동을 도와주었다. 그들의 고마운 노력으로 우리가 혼자 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모일지는 예상했다.

Q. 모금된 기금은 어떻게 쓰여지는가

모든 기금은 주한네팔대사관을 통해 네팔 정부에게 전달될 것이다. 그 모금액은 우선적으로 지진으로 음식, 집, 옷 등 모든 것을 잃은 피해자들에게 쓰여 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고 길바닥에서 자는 신세가 됐다. 그들은 임시 주택에서 살

고 있다. 모인 돈들은 정부를 통해 그들에게 의료 지원, 주거 지원 등 에 사용될 것이다.

Q. 정확한 고향의 위치는

Pokhara, 서쪽 지역의 행정수도이고 네팔의 서쪽에 있는 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다. 네팔은 5개의 큰 지역으로 나뉘어있다.

Q. 처음 대지진 소식을 접했을 때 기분은

네팔에 다라라(Dharara)라는 유명한 탐이 있다. 우리 둘이 제주공항에 같이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있었다. 그 때 프로답이 페이스북에서 불과된 다라라 사진을 보여줬다. 처음엔 우리는 믿지 않았다. 누가 거짓말로 장난치거나 합성한 줄 알았다. 그리고 나서 뉴스 채널을 봤는데 처음엔 멍하다가 나중에 말 그대로 약동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CNN, BBC 등에서 실시간으로 계속 전해주는 뉴스를 보면서 그제서야 끔찍한 상황을 인식하게 됐다.

또 당시에 통신 관련 모든 시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연락하기 어려웠다. 다행이도 상대적으로 덜 피해를 입은 지역이고 손상되지 않은 루트를 찾아 비교적 빨리 가족들과 연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심인 카트만두로 연락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Q. 가족들에게 피해는 없었나

제주대 구성원 여러분이 걱정해준 덕분에 유학생 4명의 가족들 모두 무사하다. 하지만 카트만두가 고향인 Krishna의 집이 무너



Shreedmar Devkota(생명화학공학과 박사과정) 대학원생과 Pradeep Ahikari(생명공학부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참혹한 네팔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졌다. 친인척들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재산피해입은 곳이 상당히 있었다. 친척 중 한 명은 집이 완전히 붕괴돼 지금 임시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다.

Q. 규모가 상상이 안 가는데 어느 정도였는지 설명해 달라

7.8강도의 지진이 있었고 어제까지(당시 5월7일)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보통 여진의 세기는 5.0 정도인데 이번에는 6.0 이상이고 어젠 6.8 강도의 여진이 있었다. 이 지진 때문에 수도 카트만두의 높이가 1m 상승했고 남쪽으로 3m 이동했다고 한다.

Q. 에피소드 하나 소개해 달라

히말라야 산중턱에 랑탕베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곳은 산악인들이 트레킹하기 위해 모이는 장소이다. 지진 후에 거대한 눈사

태가 일었고 그 눈사태로 마을 하나가 없어졌고 250여 명이 실종됐다. 이것 말고도 끔찍하고 상상하기 어려운 참사가 수 없이 일었다.

그 가운데 기적적인 일도 있었다. 잔해 속에서 4일 동안 갇혀있던 2개월짜리 아기가 구조됐고, 9일 후에 30대 남성이 구조되는 일도 있었다.

Q.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한마디

모금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국제교류본부, 총학생회, 유학생회 모두와 모금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 공식적인 모금은 끝났지만 저희는 언제나 열려있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주시면 모금을 전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전지민 기자

사라캠퍼스 어린이날 행사 ‘풍성’

세월호 추모 위해 작년 중단

“자연스러운 실습 기회”

교육대학 와이파이 학생회(학생회장 김태양 초등교육교육전공 3)는 5일 어린이날 사라캠퍼스에서 ‘2015 어린이날 체험행사’를 개최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 이날 행사는 초등교육학과 내 12개 심화전공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체험부스가 운영됐다.

이날 행사는 △어린이 올림픽 △주렁구 만들기 △전통놀이 체험 △페이스 페인팅 △공기대포와 비눗방울 만들기 △압화 △스크래치 퍼즐 △피리와 마라카스 만들기 등의 각종 체험프로그램으로 행사장을 찾은 많은 가족단위 방문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또한 시청각실에서는 초등국어교육전공이 주관한 ‘제15회 제주 어린이 동화구연 대회’가 열렸다.

지난해는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뜻에서 행사를 열지 않았기에 어린이날 행사가 2년 만에 재개됐다.

올해 행사는 축제의 분위기를 내는데 중점을 뒀다. 가지각색의 만국기와 바람개비가 설치됐고 동아리 축하 공연과 작은 음악회도 열렸다.

김태양 학생회장은 “어린이들이 어린이날만이라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이런 행사의 장을 매년 만들어 가고 있다”며 “앞으로는 행사의 규모를 확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혜리(초등교육학전공 2)씨는 “교육대학을 다니며 아이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교육봉사와 실습 등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대의 특성을 살린 이번 행사를 통해 하루뿐이었지만 아이들을 만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덧붙혔다.

황유리 수습기자

“버려지는 굴 껍질, 암세포 억제 도움 것”

삼백초와 감굴 푸른 껍질이 암 줄기세포 억제에 탁월하다고 밝혀졌다.

정동기(생명공학부 동물자원과학전공) 교수는 BRM연구소(실장 박양호)와 2007년부터 공동 연구를 진행해 왔다. 삼백초와 감굴 청피에서 추출한 BRM270 성분은 암 세포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천연물을 주성분으로 한 BRM270은 암의 근본적 치료가 이뤄지지 않는 일반

항암제와는 달리 암 성분의 제거까지 가능하다.

연구를 진행한 정동기 교수는 “매년 제주도에서는 4~6만톤의 감굴 청피가 버려지는데, 이를 이용해 암 환자를 도울 수 있다”며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매우 뜻 깊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SCI급 국제 학술지인 ‘International Journal of Oncology’ 최근호에 발표했다. 김미래 수습기자

훈련과 학습교육 겸비한 체육영재 양성

체육영재센터(센터장 이창준 체육학과 교수)는 13일부터 8일간 “2015년도 제주권 체육영재”를 모집한다.

체육 영재로 선정되면 체력운동, 기술 훈련 외에도 지적학습을 위한 전인교육, 스포츠과학교육이 함께 진행된다.

모집은 육상, 체조, 수영 종목에 열의가 있는 도내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의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한다. 선발방식은 1단계 서

류전형에서 학교장 및 담임선생님 추천서를 평가하고, 2단계에서는 면접을 통한 인성, 잠재력 검사, 3단계에서 신체검사로 구성된다.

체육영재센터 관계자는 “체육에 열정적인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열의도 갖추도록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체육계를 이끌어 갈 유능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미래 수습기자

투명한 업무 추진 위한 설명회 열려

‘15년 계약업체 초청 설명회’가 4월 30일 개최됐다. 설명회는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고액중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또한 시설공사 업체 40개의 관계자 44명이 참여했다.

행사를 진행한 제주대(총장 허항진)는

설명회에서 대학 계약절차 및 서식·계약관련 규정 등을 홍보했다. 또 올해 달라지는 제도·개선사항·시설사업 등을 소개했다. 제주대는 올해부터 홈페이지를 통한 계약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기계약을 지양하고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 확대와 SNS안내 서비스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승규 기자

권하고 싶은 책

사회생활을 앞 둔 대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

20대, 공부에 미쳐라

나카지마 다카시 지음

나는 독서를 즐겨한다. 다만, 독서의 수준과 관련해서는 부끄럽게도 깊이 있는 어려운 책보다는 쉽게 읽히는 소설책을 선호하고, 그 외에는 서점에서 소위 ‘베스트셀러’라고 하여 추천하는 책(이 경우에는 장르를 잘 따지지 않는다)을 고르는 ‘잘 낚이는’ 스타일이다. 한편 제목만 봐도 어려운 책, 판가를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 팍 나는 자기개발서나 처세서들은 사실 잘 보지 않는다.

그런데 학교 신문에서 소개하고 싶은 책을 추천해 달라하니, 학교 신문의 주 독자들인 학생들이 읽으면 좋을 책을 고민하게 되었고, 책장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책을 보다 앞서 말한 나의 취향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사회생활을 앞두고 있는’ 20대의 대학생들이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20대, 공부에 미쳐라〉라는 책이 눈에 들어왔다.

먼저, 〈20대, 공부에 미쳐라〉라는 제목은 결코 내가 이 지면을 빌어하고 싶은 주제라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둔다. 도

리어 나는 쫓겨난 정준에 공부에만 미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다만, 그 책 안에는 저자가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50개의 소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0대를 이미 지나쳐 온 내가 20대의 대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이를 꼼꼼히 봤다. 아래에서는 이 책에서 언급된 소재목 밑에, 내가 첨언하고 싶은 이야기를 덧붙여 보았다.

◇먼저 주위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라

학창시절까지는 각자의 학업을 하는 것이기에 굳이 공부를 잘하지 않더라도 남들 눈에 띄는 재능이 있거나, 성격이 좋으면 원만한 대외관계가 형성된다. 하지만, 사회는 조금 다르다. 본인이 맡은 바 임무를 잘 하는 것이 제일 기본이 되기 때문에, 임무를 못하지만 성격만은 좋은 사람이 사회에서 인정받기는 힘들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사람이 성공한다는 점을 기억하라

사회생활을 해보면, 강하기만 한 사람, 부드러운만 해서 뽕물같은 사람, 이도저도 아닌 사람 등 다양한 유형의 사람과 설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유형의 사람이 있다.

그런데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찾게 되는 사람은 위기에는 강하면서 성격은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점을 알게 된다. 강하기만 하면 부담스럽고, 부드럽기만 하면 위기에 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프리젠테이션 기술을 연마하라

이는 내가 수업시간에도 항상 강조하는 이야기이다. 나는 로펌 소속 변호사로 10년 가까운 시간을 보냈고, 실제 요즘에는 재판에서도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구술변론이 많이 활용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파워포인트를 멋있게 만드는 데 익숙하지 않아서 직원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기술적으로 나타내는데도 한계가 있고, 시간도 더 걸리게 된다.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본인이 직접 기술적으로도 멋진 파워포인트로

만들고 이를 제시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다면 그 주장에 어찌 설득력이 없을 수 있을까. ◇휴일에는 거리에 나가고, 자신에게 맞는 건강관리법을 찾아라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초기에는 나이도 젊고 열정이 넘치기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평일 야근도 불사하고, 주말도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다. 과부하에 걸리기 딱 쉬운 때이다.

이 책 역시 제목은 공부에 미쳐라고 외치면서도, 사실은 휴일에는 거리에 나가고, 자신에게 맞는 건강관리법을 확보하여 자신의 삶을 챙기고, 여유도 즐겨야 한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 휴일을 즐겨야 새로운 기운이 나고, 건강이 확보되어야 일을 할 수 있다.

요컨대, 많은 자기개발서가 그러하듯이 책 역시 젊은이들로 하여금 무엇이든 열심히 하면서, 동시에 적절한 목표를 세워야 하고, 그 와중에 인간관계도 놓쳐서는 안 되고, 더불어 삶의 여유와 건강도 챙겨야 한다는 점을 세부적으로 나뉘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뭔가 가슴이 답답한데, 그래도 누군가로부터 격려의 말을 듣고 싶을 때, 커피 한잔을 쥔채들고 제주대학교 교정의 바람을 맞으며 이 책을 한 번 읽어보면 어떨까.

장해진 법학과 교수

사람들

관상철 지리교육과 교수

한국과학기술도서 번역상 수상



관상철 (지리교육과)교수는 4월 28일 제33회 한국과학기술도서상 수상식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수여하는 번역상을 수상했다.

한국과학기술도서상은 우수한 과학기술도서에 대한 포상을 통해 도서 제작에 참여한 각 분야 종사자들의 창작의욕을 북돋게 하여 과학기술 발전과 출판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환경문제에 대해 자연과학적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사회과학적 논의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이 책은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과학적 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어 그 부분을 소개시켜 주고 싶은 욕심에 번역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디지털 기제로 인해 요즘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지 않아 출판업이 위기라고 하는데 정보지식을 공유하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단하다”며 “그런 분들이 삼گاهی 이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하다”고 덧붙혔다. 김정희 수습기자

김상재 메카트로닉스공학과 교수팀

스스로 에너지 생산·저장 축전기 개발



김상재 (메카트로닉스공학과) 교수와 왕종민, 이승우(미국 조지아텍) 교수, 김영수(삼성정밀화학) 박사팀이 수여하는 번역상을 수상했다.

이 책은 “이번에 개발한 축전지는 작은 힘으로도 전기를 생산·저장하는 특성이 있다”며 “휴대용 스마트전자기기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설치해 외부전력의 공급이 어려운 재난 발생지역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기초연구사업(중견연구자지원)의 하나로 수행된 이번 연구는 재료 분야 국제학술지인 ‘ACS 나노’ 온라인판 3월 26일자에 실렸다.

심소연 수습기자

제주대신문의 취업개황

구직난과 실업난의 혼재, ‘일자리 미스매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학생들의 직무 선택과 역량강화가 필요

< 4 > ‘일자리 미스매치’, 원인과 해결방안

지난 기획에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정부의 취업정책과 최근 취업 경향을 알아봤다. 이번 호에서는 청년 실업의 주변으로 꼽히는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다.

<편집자 주>

동상이몽(同床異夢), 같은 침상에 서로 다른 꿈을 꾸는 뜻으로 같은 입장, 일인데도 생각이 저마다 다름을 비유한 말이다. 이 말은 지금 취업시장에도 들어맞는다. 기업은 직원을 필요로 하고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도 충분하다. 그러나 기업은 구인난을, 구직자들은 구직난을 외치는 구직난과 실업난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바로 ‘일자리 미스매치’다. 이런 현상에 대한 입장차가 있다. 기업체나 정부는 학생들이 중소기업에 대해 무관심하고 대기업이나 공무원 및 공기업 취업에만 매달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또 “학생과 기업 간의 눈높이 차이도 고쳐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눈높이 차이를 지적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 중소기업으로 지원하라는 말처럼 들린다”며 “좋은 중소기업도 있지만 많은 중소기업이 낮은 임금과 복지가 열악하다는 말을 자주 듣기에 대기업이나 공무원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팽팽하다.



◇미스매치, 원인은 무엇인가?

일자리 미스매치의 요인으로는 흔히들 보상의 미스매치, 숙련의 미스매치, 정보의 미스매치 등을 꼽는다. ‘보상의 미스매치’는 구직자와 기업 간에 근로조건 등 보상의 문제에 대한 눈높이가 서로 다른 것을 말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2013년도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평균 초봉과 대학생 희망 초봉에 큰 차이가 있다. 중소기업의 대졸자 평균 연봉의 절반이상이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74.8%에 머무른 반면 대학생 희망 평균 초봉은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은 29.2%,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은 27.7%에 대부분 머물렀다. 희망 연봉 외에도 기업이 제공하는 복리후생, 작업여건 등 중소기업과 학생들 간의 ‘보상’에 관한 미스매치가 발생한다.

‘숙련의 미스매치’는 수요 측에서는 직종 및 직능수준에 맞는 지원자 부족, 공급 측에서는 희망직종에 맞는 일자리 부족을 말한다. 공급자 중심의 인력 양성으로 인한 취업자의 직무능력이 현장수요와 괴리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은 70.9%로 매년 급증하며 학력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고학력자가 양성돼 자동화 시스템이 보편화된 기업 환경 내에서 높은 학력

보단 단순 인력을 요구하고 있다. 즉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과 직무불일치가 크게 확대됐다. 또 대학 기업 내 현장과 맞지 않은 대학교육 시스템이 숙련의 미스매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정보의 미스매치’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주로 나타난다. 구직자는 채용정보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급여, 비전, 복리후생 등에 대해 알고 싶은데 중소기업의 경우 관련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은데서 나타나는 미스매치다. 우수 중소기업의 채용정보를 접할 수 없는 여건이 미스매치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요를 담당하는 기업들, 좀 더 정확히 ‘중소기업’들은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고 ‘대기업 대 중소기업’이라는 기형적인 구직시장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학진학률이 상승, 학력 인플레이션 현상에 따라 대부분 청년층들이 대학을 진학하며 상대적으로 취업 기대수준 또한 올라가게 되며 일자리와 학력 간 불일치가 상승했다. 산업계 수요와 동떨어진 공급자 중심의 고학력 풍토가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학력이 높아질수록 일자리 미스매치 인력이 늘고 있다. 고졸 이하, 중졸 이하의 경우 미스매치 인력이 없는 반면 대졸 이상의 경우 미스매치 인력이 100만 여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젊은 나이에 지방에서 몇 년 근무하면 어쩔고, 보수가 좀 적어도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는데 현장에서 뛰는 것 또한 어떠냐는



것이 기업의 목소리다.

◇일자리 미스매치, 학생들만의 문제인가

통계청 사회조사의 2013년도 결과를 보면 19~24세 청년이 선호하는 직장은 국가기관(27.4%)이 가장 많고 이어 대기업(19.8%), 공기업(18.4%)의 순이고, 중소기업은 3.5%, 벤처기업은 2.5%에 불과했다. 그러나 대학 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중소기업연구원 조사에서 응답자의 83.6%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답했다. 이는 미스매치 문제가 단순히 학생들의 눈높이로 인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현재 제주대에 재학 중인 이모씨는 취업준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을 꿈꾸며 준비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확신이 없다. 각종 자격증과 학점, 토익 점수 등 이력을 뽐내며 채웠지만 갈수록 대기업, 공기업에 들어가기에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워지고 있어 이씨도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려봤다. 그러나 그쪽 사정도 만만치 않았다. 이씨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취업이 어려워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려봐도 현실은 비슷하다. 대기업, 공기업의 취업이 어려운 이유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중소기업보다 여러 여건에서 좋지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들어간다고 해도 연봉이나 근무 여건 등에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비해 처우가 좋지 않다. 그리고 불황도 심각한데 언제 회사가 문을 닫거나 해고될지 알 수 없어 편하게 회사생활을 할 수도 없어 기피 현상이 심하다. 학생들이 중소기업을 외면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2012년 중앙기업 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낮은 급여 수준’(39%)이 가장 많이 꼽혔다. 고용불안(33%), 주위의 낮은 평판(17%)도 중소기업 취업을 망설이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은 정규직의 경우도 고용안정성이 높지 않다. 2013년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직원들의 평균근속기간은 3~5년 미만 42.8%, 5년 이상 33.2%, 1~3년 미만은 22.4%로 나타났다. 이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해도 근속기간이 짧은 편이다.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 또한 미스매치 문제를 가속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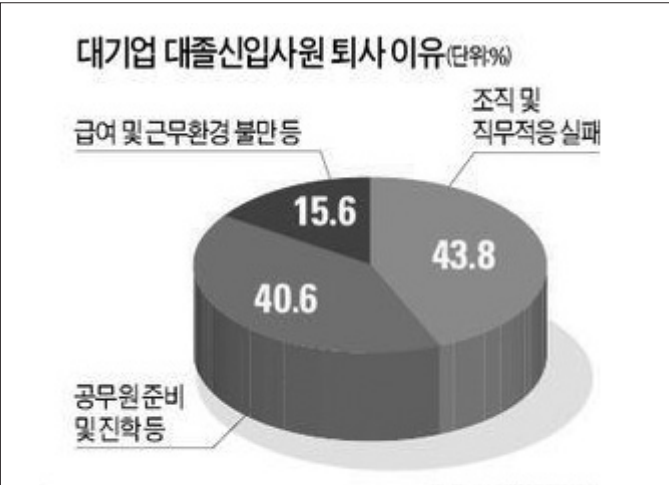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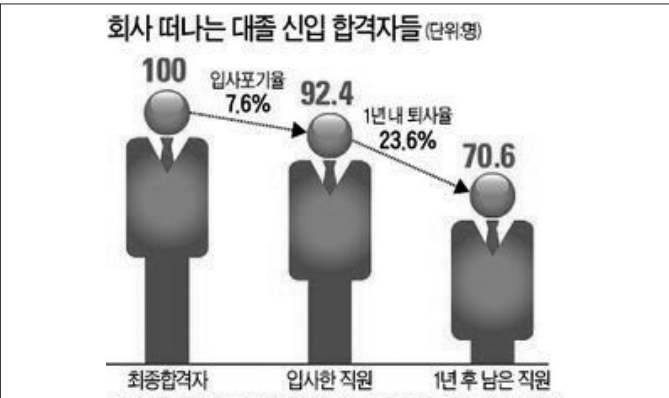
◇직무 선택, 역량 강화가 필요

그렇다면 미스매치 문제를 위한 해결방안은 무엇일까. 2012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392개 기업을 조사해 발표한 ‘신입·경력사원 채용 실태 특징’에 따르면 지난해 입사한 대졸 신입사원의 1년 이내 퇴사율은 23.6%였다. 신입사원들이 조기 퇴직하는 가장 큰 이유로 ‘조직 및 직무 적응 실패’(43.8%)를 꼽았다. 학생들은 대기업, 중소기업에 떠나 현재가 아닌 5년, 10년 후 자신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을지를 생각하고 자신과 맞는 기업과 직무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김경보 취업전략본부 취업컨설턴트는 “취업 준비를 할 때 기업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맞는 직무를 정하고 그에 따른 산업, 업종을 생각하고 기업을 선택해야 한다”며 “학내 취업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잘 활용한다면 미스매치를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자체적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대학과 기업 간의 산학협력을 통해 대학이 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의 의식 전환 또한 필요하다. 취업 준비에 앞서 본인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목표 설정을 하고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 사이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학생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것이 우리 세대가 직면한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할 방안 중 하나이다.

부찬우 기자



2013년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대졸 신입사원의 1년 이내 퇴사율은 23.6%다. 조기 퇴직의 가장 큰 이유로는 ‘조직 및 직무적응 실패’(43.8%)가 꼽혔다.

<출처: 한국경제>

함박웃음 피어나는 동아리탐방 4

J.P.C

자유롭게 추억을 찍고 나눌 수 있는 공간

“나는 평생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길 바랐다. 하지만 인생의 모든 순간이 결정적 순간이었다.” 프랑스의 사진작가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 한 말이다. 우리학교에도 매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언제든 사진찍을 준비가 돼 있는 동아리가 있다. 바로 사진클럽 ‘J.P.C’이다.

‘J.P.C’는 전시창작분과에 속해 있는 사진동아리이다. J.P.C는 ‘Jeju National University Photography Club’의 줄임말이다. 1978년 지금의 OB학생들이 처음 활동을 시작했고 1979년 동아리를 창립했다.

◇전문적인 사진교육과 출사

‘J.P.C’는 대학생으로 구성된 YB와 대학 졸업 후 동아리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OB로 구성된다. YB와 OB가 각자 활동을 할 경우가 있고 연합해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

대학생으로 구성된 YB는 두 가지 활동을 주로 진행한다. 우선 그들은 매주 주말 출사를 다닌다. 가파도나 용담 등 제주의 다양한 곳을 돌아다니며 신입생들에게 사진구도와 카메라 사용법을 설명하고 같이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활동이다. 그렇게 찍은 사진들은 사진관을 운영하는 OB선배님께 검사를 받는다. 그 후 합격을 받은 사진들은 매년 연말에 전시를 한다.

두 번째 활동은 스터디 활동이다. 그들은 동아리방에 설치돼있는 암실에서 사진을 현상하고 인화하고 있다. 또한 카메라 메커니즘과 포토샵에 대해서도 신입생들과 함께 공부한다. 이런 과정을 모두 OB선배님께 가르침을 받는다고 한다. 이외에도 사진을



신인전시회에서 JPC학생들이 서로에게 작품소개를 하고 있다.

전공하신 OB선배들이 많아 언제든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권용선(지구해양학과 2)회장은 “현상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요즘에 자기가 찍은 사진을 직접 인화할 수 있다는 것이 동아리의 매력중 하나다”며 “또한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고 말했다.

◇1년간의 맘이 담긴 하나밖에 없는 전시회

학생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찍은 사진들은 매년 열리는 신인전시회, 연합전시회 등을 통해 일반인들에게도 전시되고 있다. 신인 전시회는 매년 4월초에 열리는데 1학년 활동을 마친 준회원인 학생들이 신인전을 통해 정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또

한 OB와 YB가 함께하는 연합전시회를 통해서도 사진은 전시된다. 이런 전시회는 학생회관뿐만 아니라 문예회관 등에서 열린다.

동아리 학생들은 자신들이 찍은 사진이 전시회를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자랑스럽다며 뿌듯한 마음을 전했다.

권용선 회장은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추억을 남긴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며 “그런 점에서 인물과 풍경, 서로의 활동 모습까지 찍는 J.P.C는 어떤 동아리보다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카메라가 없어도 되고 사진을 잘 못 찍어도 괜찮다”며 “사진에 관심이 있다가거나 잘 찍고 싶다면 편하게 동아리방의 문을 노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해건 기자

탈춤연구회

우리 민족의 얼을 몸으로 표현

탈춤은 탈을 쓰고 수많은 재담과 연극적인 요소가 어우러진 우리나라 최고의 민중 예술이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탈춤의 예로는 봉산탈춤, 하회별신굿탈놀이 등이 있다.

‘탈춤연구회’는 공연예술분과에 속해 있는 탈춤 동아리이다. 올해 36년째를 맞는 탈춤연구회는 몸짓과 소리를 통해 사회계층의 부조리에 대한 비판과 해학, 풍자를 진행하고 있다. 동아리가 계승되면서 투쟁의 성격이 많이 약화됐지만 다양한 사고를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민족의 얼 계승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민족의 얼을 계승하면서 억압된 사회에 대해서 투쟁하며 1980년 탈춤연구회는 창립됐다. 그래서 탈춤 동아리 학생들은 사회의 이슈에 관심이 많다. 이들은 2주에 한번 동아리원들끼리 모여 탈춤의 역사, 캐릭터에 대해 조사하고 이야기를 나눈다. 또한 사회이슈에 대한 토론을 하며 부조리에 대한 비판도 하고 있다. 이외에도 탈춤 연습을 1주일에 4번씩 꾸준히 하고 있다.

지금 탈춤연구회는 장구, 북, 평가리 등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와 춤을 추는 탈춤꾼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양반을 풍자하는 봉산탈춤과 스님의 자아성찰을 다룬 목중을 주로 연습하고 있다. 이런 활동을 바탕으로 탈춤연구회는 2014년 하와이에 초청공연을 다녀오기도 했다.

◇위기가 만들어낸 가족같은 분위기

전통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하는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탈춤연구회 학생들은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두루너름(제주

탈춤패)으로 찾아가서 악기 다루는 법, 춤추는 법 등 탈춤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전수 받고 있다. 이외에도 탈춤아리를 했던 동문선배들이 초청해 전통을 말해주는 등 개인적으로도 전수를 받고 있다.

많은 열정을 가지고 활동했지만 동아리의 위기도 상당히 많았다. 탈춤이라는 것이 생소한 학생들이 동아리 가입을 꺼려해 악사와 춤꾼이 없었던 적도 많았다. 실제 그런 상황 때문에 동아리의 운영이 이뤄지지 않았고 몇 년 동안은 제대로 된 활동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고정완 회장은 전했다.

고정완(전기공학과 2) 회장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지 않으니 적은 인원으로 동아리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하지만 그런 상황이 가족처럼 도와주고 챙겨주는 분위기가 형성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민족의 얼을 몸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보람을 느끼고 있다”며 “요즘 사회에서 잘 하고 있지 않은 탈춤에 대해 배우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탈춤연구회의 올해 계획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하지만 공연체제가 들어오는 대로 공연을 할 생각이고 그러기 위해 꾸준히 연습을 할 생각이라고 탈춤공원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고 회장은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전통에 대한 의식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저희 탈춤 연구회의 공연을 보면서 전통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해건 기자



탈춤연구회 학생들이 통합출범식에서 탈춤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담론通

담론통지기 <2> 서영표 사회학과 교수

◇포퓰리즘의 정의는 무엇인가?
포퓰리즘 말 그 자체로 하면 ‘populis’, 즉 ‘people’ 이다. 이를 민중 또는 사람들이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포퓰리즘이란 사람들을 우선시하는 정치적 원리입니다. 하지만 포퓰리즘은 20세기 선거 정치가 본격화되면서 대중을 동원하는 부정적의미로 더 많이 사용됩니다.

◇대중의 정의는 무엇인가?
대중의 영어적 표현은 매스(mass)이고 매스는 초기에는 경멸적인 말이었습니다. 서유럽 중세시대 지배층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또는 조선시대 양반 관료들의 입장에서 보면 농민들은 흠어져 있으면 평범한 개별적인 농민이지만, 이들이 저항하거나 반항하기 위해 모치면 폭도로 인식했습니다. 이들을 경멸적으로 표현하는 용어가 대중 또는 매스였던 것이죠.

산업혁명 이후의 매스는 새롭게 등장한 노동계급이었습니다. 신흥부르주아, 자본가들이나 또는 귀족들에게 노동계급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화됐었고, 지식수준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분석한 영국의 레이먼드 윌리엄스의 저작 <The Long Revolution>에서는 대중이 단순히 경멸적인 대상에서 정치적 주체가 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근대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매스라고 표현했던 사람들이 정치적 주체가 되는 과정으로 들어납니다.

단순화하자면 과거에 매스와 피플은 다른 표현이었지만 근대 민주주의 혁명 이후에는 매스가 곧 피플이 된 것이죠.
◇민중이 본격적으로 다뤄진 시기는 언제인가?

민중이 사회과학의 대상으로 등장한 것은 16세기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마키아벨리는 “군주는 개인이고, 어떤 정치적 시스템을 바꿀 때 군주가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군주는 개인이기 때문에 변덕스럽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안정적인 정치적 권력은 피플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식의 근대의 정치적 개념에서 피플이 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 단계에서 대중내지 피플을 정치적 주체로 이야기할 이유는 거의 없었습니다.<대중이 정치적 주체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포퓰리즘이 본격적으로 다뤄졌다는 말씀이시죠?> 네. 단순히 통치의 대상이 신민들이었을 뿐이죠. 결론적으로 보통선거에 기반한 민주주의 정치가 등장하면서 민중이 본격적으로 정치 주체로 등장합니다.

◇부정적인 의미의 포퓰리즘은 어떤 사례가 있나?

누군가에 대한 원한내지 적대감을 통해 대중을 동원하는 파시즘과 나치즘이 있습니다. 또 남미의 포퓰리즘은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된 대중주의주의 인기영합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치인 개인을 상품화시키는 정치가적 포퓰리즘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전직 수상이죠. 이미지 메이킹으로 인기있는 대중적인 정치인으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많은 한국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을 부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은 본래 부정적인 개념이었나?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주된 의미의 포퓰리즘이 파시즘이라던지 남미의 대중을 동원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했다든지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한국같은 경우에 부정적으로 쓰여지는 이유가 대중인기영합주의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두 거대 정당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뚜렷한 이념적 정책적 차이가 없는 정치적 상황에서 선거중심의 정치를 하다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도 못할 정책과 공약을 쏟아내고 상대가 그런 행동을 하면 포퓰리스트라고 비난하죠.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어떻게 부정적 의미의 포퓰리즘을 넘어 민중의 정치를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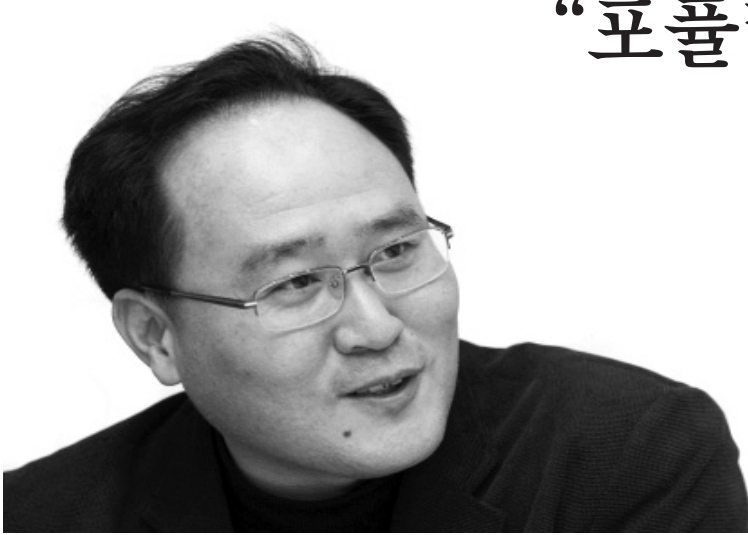


공약만 남발하는 잘못된 포퓰리즘의 사례

할 수 있을까?

대중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것이 인기영합주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포퓰리즘적 요소와 민중 민주주의 또는 민주주의의 급진화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급진화라고 하는 것은 일상 생활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통로가 넓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뭐가 필요한지 쫓아다니는 정당의 장에서 이야기하고 그 과정에서 충돌하는 의견을 모두 듣고 서로



설득하고 합의하고, 충돌하는 지점에서 해소를하고, 해소가 안되는 지점에서 정치인들이 중재를 하거나,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과정이 있을 때 비로소 대중들이 참여하는 진정한 민중 민주주의로서의 포퓰리즘이 실현되는 겁니다. 근대 오늘날의 포퓰리즘은 그런데 아니라 공약만 남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라인홀트 니부어는 “개인은 도덕적이지만 모이면 비도덕적이 된다”고 주장한 반면 안토니오 네그리와 마이클 하트는 “개인은 아주 낮은 지성을 가지고 있는데 집합이 되면 높은 수준의 지성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이분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대중은 부정적 존재인가, 긍정적 존재인가?

두 주장 모두 너무 단정적입니다. 얘기를 하자면 전자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들이 합리적이고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합리적 결과로 귀결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개별의 입장에서 보자면, 가장 편리하고 합리적인 것 중 하나는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차를 가지게 되니까 교통 체증에 온실 가스 배출에 교통사고로 인명피해 증가, 대기 오염에 소음공해에, 이에 파생되는 질병들이 발생합니다. 개인은 합리적으로 행동하지만 사회 전체로는 합리적인 개인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라인홀트는 대중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20세기 중반을 살았고 파시즘을 목격했다면 충분히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기가 볼 때에 개개인을 만났을땐 굉장히 도덕적인데 그 사람들이 나치에 동조를 하고 학살을 하고 유대인들을 가둬서 학살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 일반화 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올 수 있는 주장일뿐입니다.

후자의 경우 지나치게 낙관적인거 같습니

다. 민주주의는 부딪히는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주장하고 인정하고 설득하고, 합의에 이르고, 또 그 합의가 다시 깨지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는 실천, 수행을 통해서 구성되어지는 것으로서의 다중 또는 민중이라는 것이지, 민중은 그 자체로 선명적으로 정의될 수 없습니다.
◇권력에 저항하는 대중에 대한 현상을 모두 포퓰리즘으로 인식하는 것은 타당한가? 아니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포퓰리즘은 저항 행위자체를 지칭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정치적 토대로서의 대중의 정서와 행위를 설명하는 원리입니다. 저항은 사회운동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정치적 시스템, 이데올로기적 구조 안에서는 해결이 안되는 소통이 막혀있는, 즉, 자신의 의사를 공식화된 통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주제를 가지고 거리에서 광장에서 자기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정치적 시스템이 수용할 수 도 있지만 이게 좀 더 큰 시위로 발전하는 경우는 의사표현을 했는데 소통이 안됐을 때입니다.

기본적인 권리가 위배되지만 법의 절차라든지, 권력이라든지 행정적 절차 등지에서 는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편적인 이념, 민주주의, 정의, 인권 개념에 기대서 요구할 수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무시하거나 불순한 세력이 개입돼서 했다고 주장한다든지하면 대중의 시위는 커지고 강도는 세집니다.
◇언론과 정치권에서 ‘포퓰리즘=선동’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광우병 시위부터 세월호 집회까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선동하는 것이고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 행위들이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 정치적 목적은 기존의 제도 정치 안에서 반영이 되지 않아 그러면 나의 목소리를 외치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인 동



2008년 광우병 시위 당시 서울 청계광장과 거리를 가득 채운 시민들

년대 유럽에서는 공산당 중심의 전통적인 좌파와 자본주의 지배 엘리트에 맞서 평범한 사람들의 이익을 옹호하려고 했던 신좌파(New Left) 운동이나 생태운동 같은 진보적 포퓰리즘 운동이 전개되었다.

“유럽이나 북미에서 말하는 포퓰리즘과 우리나라, 큰 차이” “자유민주주의 한계 직시하고 극복하는 길 모색해야”

아울러 포퓰리즘의 대륙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포퓰리즘이 나타난 바 있는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2000년대 들어서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에콰도르의 라파엘 코레이 같은 좌파 정치가들이 폭넓은 대중들의 지지에 힘입어 기존의 제도권 정당들을 몰리치고 정권을 장악하면서 좌파 포퓰리즘의 바람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처럼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극우정당들이 포퓰리즘 운동을 통해 정치적 세력을 확

장하면서, 유럽과 영미 학계에서는 포퓰리즘 연구가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다. 과거에는 포퓰리즘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병리적인 현상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곧 포퓰리즘은 부패한 엘리트 지배자들에 맞서 평범한 서민 대중의 이익을 옹호한다는 구실 아래, 자극적이고 감성적인 어법을 동원하여 기성 정치 체도를 공격하면서, 카리스마적인 권위를 지닌 새로운 지도자를 옹립하려는 정치 운동으로 간주되었다.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이었던 후안 페론

“포퓰리즘이란 사람들을 우선시하는 정치적 원리”

시에 생존입니다.<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이라는 단어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 그러는 것 같다>
정치적이라 하면 엘리트 민주주의에서 정치라는 것은 의회에서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좁은 의미에서의 정치입니다. 그것을 가두려고 하는 자들은 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자들이지요.

민주주의라 하는 것은 계속 말하지만 소란스러워야 합니다. 계속 무언가를 말하고 들어야 합니다. 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것 입니다. 심지어 지금 기자가 나를 인터뷰하는 이 행위도 정치적인 것 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치적이진 않다고 중립적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정치적 색을 띠지 말고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모든 것을 유리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활의 모든 행위는 정치적 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있으면 정치적 관계고, 사장과 노동자의 관계도 정치적 관계입니다. 갈등이 있는데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정치적인가요.<예를 들면, 세월호 가족들도 “절대 정치적이 아니다. 단지 진상규명을 바란다”라고 했는데 교수님 말씀은 그것도 정치적이라는 말씀이건가요>

세월호 가족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존 상황에서 이게 소위 말하는 ‘담론적 실천’이라는 겁니다. 이미 상황은 벌어져 있는데 유가족들이 “우리 정치적이고 정치적으로 주장해”라고 말하면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전달될 리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 비정치적이라고 말하는 것도 정치적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은 중립적이고 비정치적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세월호 유가족이 “우리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엘리아스 카네티는 대중의 힘은 ‘방전’이라는 내부의 어떤 사건에 의해 결집되고 그 후 강력한 단결력을 보인다는 동시에 이 또한 모순이라고 한다. 그들은 결국엔 직장으로 가정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집회 당시에도 시위하는 시민들을 향해 경찰이 해산 명령도중에 “여러분 모두 사항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과연 대중의 힘은 지속가능

할 수 없는 일시적인 것인가?
일상을 사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사냐면 “대한민국은 평등하다 민주주의 국가이고 모두가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과 나는 법 앞에서 평등하고 사회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할 수 있어” 이것이 보편적이고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일상을 살잖아요. 사람들은 일상을 살면서 사소한 계기일 수도 있고 집합적인 계기일 수도 있고 공통의 계기를 통해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해요. 이것을 ‘탈구(脫臼, dislocation)’라고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짧은 시기 내에 개인적으로 느끼게 되는 “내가 바보처럼 살았구나, 세상은 평등하지 않는데 왜 평등하다고 생각했나?”와 같은 ‘탈구’가 오랜 기간 유지되면 소위 ‘루저’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모두가 런닝머신 위를 달리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아무리 뛰어도 앞으로 못간다는걸 깨닫고 멈춰서면 어떻게 돼요? <남아지겠지요>? 그게 두려운거예요. 그리고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끊임없이 평등하다고 말하면서도 “너는 개인이야”라고 부르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은 다 경쟁자야’라고 인식합니다. 나는 좌절을 겪고 탈구를 경험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은 계속 뛰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만 멈춰서면 다 바보가 될거야’ 생각하고 다시 런닝머신 위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특정한 개기가 만들어지면 옆 사람을 확인합니다. “너도? 너도 우리가 속고 있다는걸 느꼈어?”, “너도?” 라고 하는 순간 집합적 행위로 가는 거죠. 그런 행위가 얼마나 자주 만들어 지고 지속될 수 있냐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는 대중들의 공감의 행위를 찾아내고 지속시키는 정치를 시도하는 정치집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제도화된 사회에서 그 사회를 벗어날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런닝머신을 계속 뛰면서 간극이 쌓이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불만이 쌓입니다. 그것이 파시즘적으로 발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일간베스트(일베)’입니다.

우리 모두가 간극을 동시에 느끼면서 간극을 좁히는 정치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사회 진보이자 민주주의입니다. 그런 정치가 없는 이상 한국 사회 대중의 힘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전지민 기자

포퓰리즘-극우정치와 민중정치 사이에서



진태원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포퓰리즘이라는 말은 시사 문제에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 번 접해봤을 법한 말이다. 이 말은 2000년대 이후 정치계나 언론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는 두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이 용어는 주로 ‘대중영합주의’, ‘대중선동주의’ 같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재정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다 많은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나 정책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굳어져가고 있다. ‘표(票)폴리즘’이라는 언론의 신조어는 이를 집약적으로 표현해 준다.

두 번째 특징은 국내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말은 주로 보수적인 정치가를 및 언론에 의해 언급되고 있고,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를 공격하기 위한 부정적인 용어법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특징은 유럽이나

북미 쪽에서 사용되는 포퓰리즘의 용법과는 매우 큰 차이점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포퓰리즘이라는 명칭은 대개 프랑스의 국민전선이나 이탈리아의 북부동맹 또는 오스트리아 자유당 등과 같은 극우파 정당을 지칭하고 비판하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극단적 민족주의와 이민자 추방, 외국인에 대한 복지 정책 폐지 등과 같은 극우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들이 포퓰리즘 정당으로 비판받는 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복지의 확대와 인권의 강화에 대한 요구들이 포퓰리즘으로 지칭되고 비난받는 것이다. 참으로 이상한 용어법이 아닐 수 없다.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는 한편으로 1870년대 러시아의 농민들을 계몽하려고 했던 러시아 농업 혁명가들(나로드니키)의 농촌계혁운동에서 유래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대지주 및 금융재벌에 맞서 소작인이나 자작농의 이익을 옹호하려고 했던 미국 민중당(People’s Party)의 운동에서 유래했다.

따라서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는 처음에는 전혀 부정적인 명칭이 아니었고, 우파나 극우파의 정치 운동을 가리키는 용어도 아니었다. 포퓰리즘 운동의 기원은 기층 민중의 저항 운동이었으며, 이 운동에 참여한 이들, 특히 미국의 민중주의자들은 포퓰리즘을 자랑스러운 명칭으로 생각했다. 또한 1960-70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주장이다.

마거릿 케노번이라는 학자는 포퓰리즘 운동의 근거를 민주주의의 본성 자체에서 찾는다. 곧 민주주의는 “실용성”의 측면과 “구제(redemption)”의 측면을 동시에 갖는다. 대의적인 틀 안에서 전문가들의 미묘한 협상과 타협을 통해 정치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실용성의 측면이라면, 민중의 열망과 의지를 직접 표현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지닌 구제의 측면이다. 아무리 오랜 전통과 잘 정비된 전문적인 체계를 갖춘 민주주의라 하더라도, 적어도 주기적으로는 정치의 영역 안으로 대중의 개입이라는 소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곧 정상적인 민주주의의 국가라던 정치적으로 시민들 자신의 손으로 새로운 대표자들을 뽑는 선거를 치러야 한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할 수밖에 없는 한, 시민들의 의지의 직접적인 표현에 대한 열망으로서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에서 결코 사라질 수 없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포퓰리즘은 자유민주주의의 제도적인 정치가 점차 부패한 과두제 정치로 변모해가는 데 대한 민중 자신의 불만과 저항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이것이 극우 민족주의로 변질될 수도 있고 자유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민중민주주의, 곧 뭉개는 이들의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포퓰리즘을 정적을 공격하기 위한 수사법으로 남용하기보다는 포퓰리즘이 제기하는 자유민주주의의 한계를 직시하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일이다.

>> 강정마을 기획

지금도 그들은 외롭게 외치고 있다

독단적으로 택한 정부의 무자비한 폭력

돌아갈 수 없는 과거의 삶

사람들은 '제주도'라는 단어를 듣고 무엇을 떠올릴까. 열에 아홉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상상한다. 지금도 세계 7대자연경관에 선정된 제주를 방문하기 위해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떼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멋스러운 제주에서 환경과 자신의 터전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강정마을' 주민들이다. 2007년 4월, 정부는 독단적으로 해군기지를 강정마을에 건설하겠다고 밝히자 주민들과의 갈등이 깊어졌다. 무려 8년간 부당한 공권력과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강정마을을 방문해 이곳의 현장감을 생생히 기사에 담았다.<편집자주>

◇강정마을과 정부와의 전쟁 발발 원인

2007년 4월, 제주해군기지 신축 후보지에도 명단이 없었던 강정마을이 느닷없이 선정됐다. 정부는 주민들과 어떠한 상의도 없이 멋대로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해군에게 설득된 일부 주민들은 이듬해 4월 26일, 전체주민 1900명 중 87명만 참여한 임시총회에서 해군기지유지를 결의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대다수의 주민들이 임시총회를 반대하며 이듬해 8월, 재투표를 시행했다.

그 결과 주민 725명이 참석해 680명이 해군기지건설에 대한 반대표를 던졌다. 무려

94%에 해당하는 수치다.

하지만 어두침침하고 오직 건설을 위한 중장비들이 강정마을에 들이닥쳤다. 2011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총 20만2620명의 경찰력이 투입됐다.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은 공사장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기 시작했다. 기지 사업단 앞에서는 평화 미사를 진행하는 종교 행사도 진행됐다. 그러나 경찰은 무작위한 물리적 폭력으로 이들을 과잉진압하기 시작했다. 폭력과 비폭력이 맞붙은 사태이다.

◇우범지역으로 선정된 강정마을

강정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은 독단적인 해군기지 건설에 앞서 말한 방법들로 비폭력으로 저항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해군은 이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갈등을 잠재우기 위한 폭력적인 방식을 고수해왔다. 결국 2007년 해군기지 건설이 추진된 이래 공사를 반대하다 연행된 사람들은 무려 650명에 이른다. 또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은 600여명에 도달했다. 이들은 과도하게 벌금을 내야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수치상으로 범죄율이 높은 '우범지역'으로 선정됐다.

◇아름다운 강정 바다 그리고 구럼비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해군기지 건설

반대 입장을 표하는 현수막과 함께 '구럼비'의 보존에 대한 문구들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몇몇은 자극적인 그림과 내용을 담은 어구들도 있었다. 그렇다면 구럼비가 주민들에게 어떤 존재이기에 이들은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것일까. 강정마을 깊숙이 강정포구에 도착하면 아름답고 넓은 바다가 펼쳐져있다. 지금은 비록 공사를 하기 위한 중장비들이 자리를 튼 상태이나, 방파제에 오르면 낮지만 보기에도 단단한 모습을 지닌 구럼비가 보인다. 즉, 이곳이 주민들이 자랑하는 구럼비 해안이다. 제주에서 내로라하는 유명 해안들을 관광했지만, 이렇게 장엄하고 심금을 울린 바다는 처음이었다. 제주에 처음 내려왔을 때 현무암을 보고 느꼈던 설렘을 다시 자각해 주었다.

주민들은 이런 구럼비를 사랑한다. 나만 이렇게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실제로 해군기지가 건설되고 있는 강정 앞바다는 천연기념물 44호로 지정돼 있다. 또한 강정마을이라는 작은 터전이 군사기지로 변질돼 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범설'도 천연기념물 421호로 지정돼 있다. 이러한 정보들을 듣고 보니 주민들뿐만 아니라 환경운동가들도 시위에 동참하는 사실을 이해하게 됐다. 구럼비 바위와 강정 앞바다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주변에 남방큰돌고래, 붉은발 말뚝개와 같은 멸종위기종도 다수 서식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정부와 해군은 가족들이 얼마 남지 않은 동물들의 삶을 빼앗고 있었다. 평화로운 나날 속에 터전이 파괴된 힘없는 동물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다.



집채만한 포크레인이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강정 바다 한복판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관광객 유치 위해 문화콘텐츠 창조하고 끝없이 노력해야”

아라 초대석 <15> '트멍공방' 오은순 대표

매년 아름다운 제주로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내뿐만이 아닌 해외 관광객들의 방문도 끊이지 않아 제주는 떠오르는 관광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들이 제주에서 가장 많이 찾는 장소는 어딜까. 아마 비운의 작가 '이중섭'을 기억하기 위한 이중섭거리가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일 것이다. 이중섭 작품을 전시한 미술관 앞. 책 보기에도 오래되고 낡은 집이 하나 눈에 띈다. 이중섭 거리에서 7년째 가지각색의 예술 작품을 창조해온 '트멍공방' 대표 오은순(58)씨가 그 주인공이다. 집 문 앞에 걸려있는 피노키오 인형을 유심히 지켜보는 그녀에게 조심히 말을 걸었다.



오은순 대표가 손수만든 팔찌를 '트멍 공방'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직접 묶어 주고 있다.

◇공예와의 운명적인 만남

포항에서 태어난 그녀는 부산에 위치한 대학에서 국악을 전공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전통무용을 본격적으로 배웠던 그녀는 자타가 인정한 손꼽힌 인재였다. 그러다 문득,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어렸을 때부터 재료를 가리지 않고 뭐든 만들었어요. 유일한 취미였죠. 놀이터에서도 놀다가 돌이 보이면 만지작거리며 무언가를 쌓곤 했어요. 그림 그리는 것도 너무 좋아했어요. 풍경화를 그림 때도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았어요. 곰곰이 고민해본 결과, 공예가 내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을

내렸죠."

그 때부터 그녀는 나무에 깎기를 새기는 서각과 목공예를 시작했다. 무려 10년이나 공예활동을 지속하면서, 그녀는 가끔 잠을 자면서도 작품을 구상하는 자신에게 혀를 찬다고 밝혔다.

"때때로 즐긴 사람들이 갑자기 끊을 때, 금단현상이 온다고 하잖아요. 저도 비슷했어요. 내 손아귀에 무언가가 쥐여지지 않으면 경련이 일어났어요. 그 만큼 공예에 열정을 쏟았죠."

◇제주도 도자기의 인연

"벌써 제주에 내려온 지 7년이나 됐네요.

어쩌다 제주에 내려왔냐고 가끔 주변사람들이 물어봐요. 대단한 답변을 기대한 채 말이죠. 사실 별거 없어요. 남편이 제주도 사람이예요."

처음 이중섭 거리에 등지를 틀었을 때, 그녀는 전통찻집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거리내 관광객들의 발길이 닿기 힘든 구석길 자리 덕택에 큰 명성을 얻긴 어려웠다. 그녀의 남편은 서각 명장으로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출강을 하는 유능한 장인이었다.

"남편이 자주 무시를 했어요. 같이 서각을 배웠으나 실력부터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이죠. 또 예술인이라면 공감할 파(派)가 달라 더 심한 지적을 받았죠.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서각을 하고 있는 저에게 칼을 다 빼앗더라고요. 그러면서 '서각은 하지 말라, 차라리 도자기를 해라'라고 말했죠."

남편의 권유 아닌 권유로 인해 도자기와 접했던 그녀는 새로운 세계를 맞이했다.

"공예가 제 인생을 송두리 변화시켰다면, 도자기는 제가 더 예술에 미치게 한 근원이예요.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밤낮 가리지 않고 도자기를 빚어도 지치지 않았어요. 특히 남들과 다른 도자기들을 만들고 싶었죠. 욕심을 내 색다른 모양을 상상하고 현실에 옮겼어요. 우여곡절 끝에 내가 빚은 도자기를 이 관광객들의 손에 실려 있을 때, 아직도 실감이 안나요."

그녀는 도자기뿐만이 아닌 솟대, 인형, 악세서리 등 가지각색의 예술품을 만든다. 틈날 때 마다 잠시 접어뒀던 목공예 작품도 창조한다. 한마디로 예술을 종합적으로 다루



“독단적인 정부는 물러가라!” 앞으로 해군이 거주하게 되는 관사 앞에 시위자들의 염원을 담은 현수막들이 걸려 있다.

◇강정주민들의 삶

길을 걸으면서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무작정 말을 걸었다. 발을 매김하는 할머니한테 여쭙보고 아이와 함께 손을 잡고 산책을 하던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러나 모두 내놓고 기자를 기피했다. 아마 카메라를 들고 접근하는 기자가 의심스러웠나보다. 혹여나 외부인들의 출입이 잦아 이들의 행동이 달라졌다는 추측도 해봤다. 그 생각도 잠시, 무작정 인터뷰 아닌 인터뷰를 요청했던 기자에게 잘못을 돌리고 발걸음을 땀다.

가지각색의 색상으로 옷을 입은 화사한 초등학생이 보인다. 강정의 어린 세싹들이 뛰놀고 공부하는 '강정초등학교'다. 순간 순수했던 초등학생 시절을 떠올리며, 귀여운 아이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 학교로 향했다. 생활한복을 입은 외관상 30대 중반의 남성이 저지했다. 아이들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지킴이'였다. 당황했으나 빨리 제주대신문 학생기자라는 신분을 밝히고 양해를 구했다. 학교를 보고 어린 시절을 회상해 방문했다는 뜻을 밝히자 그는 웃으며 흔쾌히 관광을 허락했다. 나에게 경계심이 풀여졌다고 생각돼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해군기지 건설 이후 주민들의 삶에 관한 질문을 했다.

"고려시대 삼별초, 4·3 사건 모두 제주를 향한 침략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건넨 말이였다. 의아했다. 4·3사건은 이해가 됐으나 삼별초는 몽고족을 몰아내기 위한 특별 군대가 아닌가. 이에 대해 의구심을 느껴 재차 물었다. 그는 삼별초가 제주에 터를 잡았을 때, 그들을 진압하기 위한 몽고·고려 연합군이 제주를 어쩔 수 없는 명분으로 침입했다는 주장이었다. 색다른 시각에 꽤나 흥미로웠다. 그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과 강정주민들을 연관시켜 이야기를 이어 갔다. 20년 정도 흘렸을까. 이야기를 마친 그와 인사를 나누고 미리 허락을 구했던 학교 관광을 시

작했다. 교정을 걸으며 곰곰이 생각했다. 아마 강정주민들은 낯선 이들의 침입이 두려웠을 것이다. 강정 포구에서 평화롭게 낚시를 하고 이들의 작은 꿈인 아이들이 구럼비에서 뛰놀던 모습을 이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이들은 분노를 느낀 것이다. 강정마을에 대해 심층적인 생각을 거치고 나니 마을의 분위기가 더욱 음습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름다운 바다와 회색 중장비들의 공존

현재 강정해안에서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 기지 건설을 위한 중장비들이 들이닥쳐 잔인하게 바다를 파괴하고 있었다. 집채만한 포크레인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난도질을 하는 모습을 보고 말문이 막혔다. 강정마을과 해군의 갈등과는 별개로 평화로웠던 자연을 파괴하는 인간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니 온 몸이 떨렸다. 바다 주변에서 서식하던 어류들이 콘크리트와 시멘트를 마시는 상황을 상상했다. 매우 안타깝고 한편으론 무서웠다. 어촌체제를 할 수 있는 강정항에서 방문객들이 제대로 관광을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파도를 막기 위해 지어진 방파제들이 그들의 할 일을 잊고 참혹한 현장 속에서 슬퍼하는 것 같았다. 또한 바다가 파괴되는 모습을 주변 가까이 위치해 있는 범섬이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바다 위에는 난생 처음 보는 중장비들도 있었다. 괴물이 따로 없었다. 여기저기 건설된 어두운 회색빛의 건물들은 강정포구의 잔혹한 현장감을 더욱 더해줬다. 저 멀리 인터넷에서 봤던 해군 관사로 추정된 건물들이 보였다. 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강정마을 첫 아파트 '해군 관사'

강정마을엔 아파트가 없었다. 그러나 7년 전부터 아파트를 짓기 위한 공사가 추진됐다. 그러나 주민들이 아닌 해군을 위한 관사

였다. 마을내 최초 아파트가 군사력의 집결지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관사 공사가 시작되는 지점에는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를 포함한 해군기지반대 세력들이 자극적인 어구를 담은 현수막을 걸었다. 그 중 일부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포스터들도 보였다. 가장 인상 깊었던 포스터는 '거짓말이 아니라면 해군기지는 평화를 지킬 수 없다'라는 내용을 실었다. 공감됐다. 타협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했던 정부가 어떻게 국민들을 보호할 것인지의 구심이 들었다. 근처에는 종교인이 시위하기 위해 마련된 천막도 있었다. 남성이었지만 머리가 하리까지 내려오고 하얀 백발의 모습에 그가 얼마나 고노하고 고생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강정천을 따라 관사를 짓고 있는 현장에 가까이 접근해보면, 해군이 시위자들을 막기 위해 철장을 조성했다. 그 철장에는 다양한 색상의 리본들이 달려 있었다.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이 전달된 리본이었다. 눈시울이 자연스레 붉어졌다. 철창 사이에서 보이는 포크레인이 아슬했다.

해군기지가 강정마을에 건설되는 사실이 옳은지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 주민들에게 있어 자신의 터전을 파괴하는 행동과 같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한국의 군사력 증강을 위한 활로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해군기지 건설 계획이 확정됐을 때 해당 지역주민들은 강정주민들처럼 반대 시위를 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독단적으로 또한 무자비한 폭력으로 과잉 추진을 한 행동이 문제가 된다. 조금만 보듬고 타협하여 설득했다면 이런 상황이 연출됐을까. 단순한 주민들의 구럼비에 대한 사랑이 정부는 눈엣가시처럼 보였을까. 오늘도 그들은 완성 돼가는 해군기지 앞에서 외롭게 농성하고 있다.

글/사진·백승규 기자

때문에 고생을 피할 순 없어요."

자신을 낮추어 겸손을 표하면 그녀는 좋은 작품을 얻기 위한 노력만큼 재료를 구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인다고 한다. 목공예를 위해 목재를 구매할 때, 그녀는 작은 트럭에 목재를 가득 담아 몇백만원씩 금액을 지불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나무가 정말 좋아요. 바람을 넘어선 돌풍이 불기 때문에, 나무들이 단련돼 있죠. 일반적인 톱으로 자르면 날이 나가요. 이렇게 최고의 재료로 작품들을 만들 수 있다면 이보다 행복한 활동은 없죠. 쉼은 안사도 나무들은 꼭 산답니다. 하하."

◇예술계의 팔방미인 '그녀의 꿈'

"제주도는 정말 아름다운 섬이에요. 저희

집도 산방산 근처에 지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나만의 보급자리에서 남편 환갑을 기념해 작은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이 제 꿈이에요. 또 제가 주도하는 '응가비'의 이름을 가진 동아리가 있어요. 도자기를 전시하는 것이 주활동이죠. 전부 미숙한 아마추어 작가들이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응가비 모두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콘텐츠가 살아야 관광지도 발전한다는 그녀. 인생의 흐름에 따라 꿈, 전공도 바뀐 그녀는 자신의 도자기가 마지막 과제라고 선언하지는 않는다. 조형물을 만드는 것과 같이 제주의 문화를 창조하는 그녀는 자신의 꿈을 정성스럽게 빛낸다.

백승규 기자



'트멍 공방' 내 위치한 그녀의 작업실에 가지각색의 재료와 함께 세월을 보낸 도구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교수시론



신형원
영어교육과 교수

“
공부는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되고, 행동은
세상의 모범이라는
‘사범’의 의미를
새기고 살아가야...”

”

기자수첩



이소윤
수습기자

“
일관된 답을 강조하는
현대 사회가
‘아싸’를 만들고 있다

”

독자기고

경쟁은 우리 삶의 원동력



오소범
연천홍보학과 2

행복을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주위에서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해도 본인은 정작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 행복을 정의하기가 어렵기에 구체적인 표현에 대한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도 당연하다. 여러 주장들이 난립하는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말이 있다. ‘모든 경쟁과 스트레스를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가자.’ 각박한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기에 충분한 말이다. 그 말을 어떤 경제학자는 반박한다. 그는 우리가 일을 때려치우고 시골로 내려가 주변사람들과 연락을 끊고 낚시를 한다고 해서 행복해 질 수 없고 열정적으로 일하고 경쟁하는 것이 행복으로 향하는 길이라 주장한다. 사람들은 경쟁을 오했다고 있다. 경쟁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나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이며 인류를 진보시켰다. 만약 자연회귀주의자의 말처럼 사람들이 경쟁하는 것을 멈추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경쟁을 부정적으로만 보지만 경쟁이 없었다면 지금의 모습은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다. 먼 옛날부터 인류는 짐승이나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경쟁해야 했다. 좀 더 좋은 삶을 위한 경쟁은 산업혁명을 일으켰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난치병들의 치료제를 개발하게 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모습은 호숫가에 집을 지어놓고 홀로 낚시하는 소로의 모습일 것이다. 그러나 정작 그들 중 누가 진실로 그렇게 살까? 물론 어떤

몇 해 전 사범대학 동료교수가 소개해준 “한 사범대학 과학교육 조교수의 삶에 대한 자서전적인 연구”라는 학술논문을 읽은 적이 있다. 당시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란 생각으로 또한 이런 주제가 학술논문에서 다루어 질 수 있는가 의아해 하면서 살펴봤었다. 상당히 학술적으로 사범대학 조교수의 삶을 돌아보고 분석하고 있었다. 내게도 ‘사범대학 조교수로서의 삶’은 적지 않은 고민거리다. 인문대학 출신인 나는 사범대학만의 전통을 접할 기회가 없었기에 이런 고민도 어쩌면 당연한지 모른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이 굳이 필요한 것인지 의아해 할 지 모른다. 그냥 통상적으로 교수란 직업에 요구되는 삶, 즉 연구자와 교육자 혹은 가끔씩 대학행정가로서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닌가 하고 말이다. 물론 그 또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사범대학 교수로서 뭔가 더 요구되는 역할이 있을 것 같아서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사범대학은 미래의 선생님을 키우는 곳이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할 수도 있는 선생님을 키우는 곳이다. 단순히 안정된 직장이란 인식을 넘어서 선생님이란 직업은 타인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할지 모른다. 중국 남송의 고종이 공자의 제자 안연을 평하면서 언급했다는 ‘공부는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됐고(學爲人師), 행동은 세상의 모범이 됐다(行爲世範)’는 말에서 ‘사범(師範)’이 기원했다고 한다. 선생님은 학문뿐만 아니라 행동에 있어서도 귀감이 돼야 함을 의미한

사범대학 교수로서의 삶

다. 내 제자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가 무엇보다도 걱정이다. 아울러 내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잘 가르치고 있는지도 말이다. 기술, 정보, 첨단과학, 무한 경쟁, 혁신, 창조, 융합 등으로 대변되는 현 시대에 사범대학의 모습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고루한 느낌마저 드는 것도 사실이다. 제자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혹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혼란스런 상황이다. 취업률을 위해 또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임용시험 준비도 시켜야 하고 그리 변변치 않은 내 연구도 해야 하고 안 되는 능력에 주어진 보직도 수행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과연 현재 내 모습이 제자들에게 ‘사범(師範)’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마침 스승의 날이 있는 5월이다. 지난해 세월호의 아픔이 있을 후에 읽었던 신문기사 하나가 생각이 난다. 당시 연일 계속되는 언론보도 속에는 혼란스런 사건 수습상황과 관련자 수사상황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무엇보다 당시 참사에 책임이 있는 어느 조직 하나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음이 밝혀졌고 이는 국민들의 극한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당시 어느 신문에서 우연히 보았던 글은 사범대학 교수인 나에게 조금의 위안이 됐다. 세월호 참사 속에서 비난을 받지 않는 유일한 집단이 ‘선생님’이라는 것이었다. 선원들은 모두 도망가고 구조작업을 해야 할 해경마저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도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아이들과 마지막까지 함께 한 그 선생님들 때문이

다. 사실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 혹은 사회적 지위와 인식은 예전 같지 않다. 그래도 세월호의 참사 속에서도 선생님들의 행동이 우리사회에 모범이 됐다는 점에서 미래의 선생님인 내 제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덕분에 내가 제자들에게 사범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걱정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던 순간이었다.

나의 아버지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던 교육자셨다. 사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종종 훈장(訓長)이라고 부르셨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훈장이라고 부르실 때마다 그리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고 정겹게 느껴졌던 기억이 있다. 왠지 최첨단의 연구와는 멀고 행정일과도 멀게 느껴지지만 사범과는 어울릴 것 같은 말이다. 제자들이 힘들 때 안타깝게 여기고 도와주고자 하였고 그 덕분에 인지 퇴임하신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자들이 빙고자 찾아오는 모습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다. 나 또한 이렇게 훈장이 돼 있고 적지 않은 내 제자들도 훈장이 될 것임이 지금에 더욱 예측이 가는 말이 돼버렸다. 아버지의 삶에서 더욱이 세월호의 참사 속에서 ‘훈장’들이 보여준 모습은 선생님이란 직업에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데 충분한 것 같다. 내 제자들도 이런 자부심을 갖고 교사의 꿈을 이뤄 그들의 학생에게 사범이 돼주길 간절히 바란다. 따라서 사범대학 교수로서 나의 삶 또한 내 제자들이 ‘공부는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되고, 행동은 세상의 모범’이 되도록 교육자로서 학자로서 살아가야 할 것 같다.

‘아싸’가 뭐 어때서

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아무런 추억을 만들지 못해 암울한 대학생활을 보내게 될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사람들 사이에서도 큰 갈등을 빚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말이지 지독하게 형식적이고 일괄적인 말들이다.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여기서 우리는 이 현상이 가져올 문제에 대해 벌써부터 걱정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자발적 아싸가 되고 싶은 혹은 이미 그런 학생들에게 ‘왜 그러냐’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들의 대답은 참으로 다양하다. 필자는 그것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첫째는 학점, 취업, 스펙 등을 쌓기 위한 바쁜 일정으로 사람들과 어울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인간관계에서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스스로 거리를 두는 것이 편하기며, 셋째는 개인 생활이 익숙해서 단체 생활이 자신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학은 자유로운 곳이다. 오로지 수능만을 위한 고3 혹은 재수생활을 하면서 한국의 대학생들은 저마다 대학에 가면 봉인해제 하고픈 것들을 마음 속에 몇 가지씩 품고 품으며 그 지옥같은 생활을 버

텨낼 것이다.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런 것들이 꼭 재미있고 즐거운 무언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다. 한 번 더 말한다. 대학은 자유로운 곳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맘껏 할 수 있는 시기는 지금 뿐이다. 열심히 할 수 있을 때 남들보다 더 배우는 것도 단체생활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세상을 즐기는 것도, 친구보다 고독을 선택하는 것도 누군가의 봉인해제 하고픈 바람이었을지 모른다.

필자는 요즘 트렌드를 따르고 있는 그 자발적 아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당신네들이 가는 길도 재미있을 거라고 혹은 편안할 거라고. 그들과 우리는 별반 다르지 않다. 원하지 않는데 인간관계를 만들어 억지로 끼워 넣는 것만이 그들을 위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맘대로 단절 지어서는 안 되는 문제이다. 누군가의 미래를 한 번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답이 정해져 있는 사회가 ‘진짜 아웃사이드’를 만든다. 그들을 밖으로 밀쳐내는 것은 그들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일관된 답만 보여주며 따르라고 강요하는 표준화에 집착하는 한국의 사회이다.

각자가 좋아하고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으면

동문칼럼



박석곤
수의학과 92학번
창주24시동물병원장

어느덧 마흔이 넘어버린 나이에 우연한 기회에 동문 칼럼을 부탁받고 어떤 얘기를 들려줄까 많은 고민을 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여러분께 강아지와 고양이를 치료하는 수의사의 흔한 일상얘기를 조금 나누고자 한다. 세상이 점점 핵가족화가 되어가고 직업의 세분화가 가속화가 되면 될수록 우리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시되고 있다. 하지만 그런 중요한 관계 속에서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또다른 누군가는 그 희생을 바탕으로 생산된 새로운 기쁨으로 환희를 느끼게 되는 아이러니한 전쟁같은 삶 속에 우리들은 둘러싸여 있다. 이런 긴장감을 해소하는데 있어 반려동물들이 하는 역할이 점점 커져간다는 것을 좀더 좁은 진료실에서 보호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매우 크게 실감하고 있다. 왜냐하면 반려동물을 처음 접하는 그들의 표정은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고 평온해 보이지만, 가벼운 불평들을 쏟아 내곤 한다. “우리 토리가 대소변을 못가려서 너무 힘들어요”, “우리 해피는 제 발가락을 너무 깨물어요”, “우리 핑키는 너무 정신이 없어 행동해요”. 이러한 보호자들의 반려동물들에 대한 어리광스러운 불평들은 마치 그들로 인해 ‘제가 너무 즐겁네요’라고 하는 행복한 푸념으로도 들린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우리들이 가장 행복감을 느낄 때는 이기적인 맘을 버리고 상대방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엇인가를 베풀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복잡한 서로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반려동물과 사심없이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보호자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들의 순수함이 강하게 느껴지고 그 대상인 반려동물들도 복잡한 세상 속의 인간들과는 달리 절대 주인을 배신하지 않는 충성심으로 그들에게 충분히 보답하고 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그래서 많은 이들이 반려동물들에게 좀 더 많은 것을 주려고 노력하는 이유인지도 모른다.

대학을 졸업하고 아픈 반려동물들을 치료해 온지도 어느덧 15년이 다 됐다.수의사로서 이 사회에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비교적 멋진일이라고 생각한다. 사람과의 직접적인 대화가 이뤄지지 못하는 동물들의 아픔을 찾아내어 치료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노력과 집중력이 필요한 일이다. 원하던 원치 않았던 보호자의 잘못된 정보전달을 노련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다소 공격적인 반려동물로부터 저를 잘 보호하면서 진료도 해야 하고, 정확한 진료 내용을 보호자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의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진료시간을 할애해야하기도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내가 가진 이 직업에 대해 무한한 자긍심을 가지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아직 초등학교 4학년 2학년에 재학중인 딸과 아들이 아빠의 이 직업에 대해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들도 한번쯤은 미래에 이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랑스런 후배, 제대인 여러분! 여러분처럼 본인이 대학생활중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많은 고민과 방황의 시간을 가졌다.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 내가 생각하는 훌륭한 인생은 많은 돈을 벌고 안정된 삶을 사는 그런 직장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직업이 내가 좋아하고 정말 사랑하며 미칠 수 있을 정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과 얼마나 많은 교집합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세상에는 절대적인 행복과 만족은 있을수 없다. 항상 그 부족함을 채우려 간절히 노력하는 제대인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여러분의 독자 의견·투고를 받습니다

원고 보내실 때 이름, 학과, 연락처를 기입해 주십시오.

게재된 원고에 한해 원고료 2만5천원을 드립니다.

☎064) 754-2277 - 2279 이메일 press@jejuun.ac.kr

병풍을 통한 녹색생활 실천



장지은
생명공학부 3

기후변화 완화의 방안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세계적으로 중요해지고 의무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의무감축국 가입을 요구하는 국제적인 압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분야별 온실가스 총 배출량에서 지역난방 배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생활계 온실가스 감축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녹색성장기본법에서 녹색생활이란 단어를 정의했고 녹색생활 캠페인과 제도를 통해 녹색생활 실천을 홍보하고 장려하고 있다.

녹색생활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현명하고 친환경적으로 이용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생활 속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것 뿐 아니라 자연친화적이면 서로 여유로운 삶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삶의 질을 추구하는 생활방식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쿨맵시 실천, 온맵시 실천, 안입는 옷 재활용, 잔반 남기지 않기, 적정 실내온도 유지 등 의식주 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행동들을 홍보하고 운동을 벌이고 있다.

평소 이런 녹색생활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면서 나는 조상들의 삶 속에서 현대사회 속 생활과 리디자인해 배울 수 있는 지혜들이 있을 거란 생각을 했다. 그래서 생각한 점이 바로 병풍이다.

병풍은 본래 외풍이 심한 겨울철에 바람

막이로 사용하던 실용적인 장식품이다.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병풍은 햇빛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병풍은 여름철에는 창가로 들어오는 태양열을 차단해 실내에 그늘효과를 낳아 실내온도를 자연스럽게 낮추고 겨울철에는 외풍을 막아주는 바람막이 역할을 해 실내온도를 높인다. 조상의 지혜가 낳은 자연적인 냉난방기구라 할 수 있다. 실내의 외풍차단을 함으로써 난방비가 30% 이상 절감되는 효과와 부가적으로 도로변 아파트는 소음차단 효과도 볼 수 있다.

병풍이 가진 자연적인 냉난방기능과 예술성은 녹색생활의 의미인 생활 속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것 뿐 아니라 병풍의 자연적인 냉난방 기능으로 자연친화적이고 예술성으로 여유로운 삶과 자아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준다. 점에서 삶의 질을 추구하는 생활방식이라 할 수 있다.

기후변화의 문제가 범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개개인의 생활 속 녹색생활 실천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병풍 속에 담긴 자연친화적인 메시지를 통해 국민들의 삶속에 들어가 의식을 전환하고 동기부여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게다가 현재 녹색생활 실천 캠페인을 하고 있는 쿨맵시 같은 경우는 본래 영국과 일본에서 먼저 시도된 캠페인 이지만 병풍은 조상들의 자연친화적인 삶이 담긴 은고지신의 정신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춰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독창적이고 전통문화화를 지켜나가는 점에 의미가 있다.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적절한가



유지한
정치외교학과 1

지난 1월 우리 사회는 한 CCTV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부모가 믿고 맡긴 아이들을 보육교사가 폭행한 영상이다. 동생이 있는 나로서는 이 영상이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물론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초등학교에서도 어쩌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심적으로 많이 불안했다.

요즘 우리 어린이들을 지켜주고 보듬어 주어야 할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CCTV설치 의무화가 집중 조명되고 있다.

4월 30일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9월부터 반드시 실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어린이집 CCTV 의무화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의 올바른 방법인지 그리고 어린이들의 안전 할 권리와 교사들의 교육할 권리 중 누구의 권리가 더 중요시 돼야 하는지의 의문점이 생긴다.

첫번째 의문점은 아동학대 근절에 CCTV가 올바른가이다. 지금까지 뉴스기사에서 다뤄졌던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이 대부분 이어서 증거확보에 어려움이 없었다. 지난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어린이를 폭행한 CCTV영상이 확산돼 논란이 있었고 그 이후 계속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모습은 CCTV를 통해 볼 수 있었다. 과연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가 보육교사의 아동에 대한 폭행을 근절 할 수 있

는 대책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두 번째는 어린이들의 안전 할 권리와 교사들의 교육할 권리 중 누구의 권리가 더 중요한지다. 표현이 서투른 어린이아들을 위해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교사들의 교육권을 생각하면 그렇지도 않다. 교사의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면 최소한 교육시설 설치자·감독권자로부터의 자유 등이 실현돼야 한다. 즉, 감시당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감시를 당하는 것 또한 교사들에게 자유권 침해에 해당 하게 돼 CCTV설치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이 가정이 늘면서 어린이들이 보육원에 맡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부모가 믿고 맡긴 보육원에서 교사들에게 폭행을 당한다면 그 상처는 부모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에게도 생길까 대가 다를 것이다. 교사 무서워서 어린이집을 가기 싫어하고 교사가 무서워 폭행을 당해도 부모에게 알리지 않기 때문에 CCTV문제가 대두됐다. 그러나 교사들의 폭행은 대다수가 아닌 소수이며, 폭행한 교사들 때문에 다른 어린이집 교사들도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CCTV의무화가 오히려 어린이들의 권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교육권, 사생활 침해도 생각해 부모들과 교사들의 노력, 그리고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힘써서 어린이도, 교사들도, 학부모들도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

가본적 있으세요? 우리대학 주변 숨겨진 명소

혹시 학업에 치여 살다보니 싱그러운 봄을 느낄 수 없었나요? 따뜻한 햇살의 온기를 느끼고 싶으신가요? 강렬한 햇빛이 내리쬐는 여름이 오기 전, 저와 함께 봄의 끝자락을 뒤쫓아 가보아요! 정작 학교 근처에 있어도 바쁘단 핑계로 가지 않았던 그 곳, 운동이라고는 숨쉬기 운동 밖에 하지 않는 기자가 한번 가봤습니다. <편집자 주>

<1> 권제오름

처음으로 다녀온 곳은 글로벌하우스 뒤에 있는 산책로입니다. 이곳의 정식 명칭은 권제오름으로, 학교 측에서 시민들을 위해 산책로를 만들고 산책로 중간에 운동기구와 벤치를 놔두는 등, 여러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오름임에도 불구하고 해발고도가 약 200m로 낮고 산책길도 경사가 심하지 않으며 흙길도 아닌 보도블록으로 정비가 꽤 되어 가벼운 마음으로 걷기 좋은 장소입니다. 곧고 높게 솟은 소나무들, 햇빛을 가려주는 나무들로 쾌적한 산책길이 조성돼 있습니다. 산책길을 걷다 보면 새소리와 나뭇잎 밟는 소리가 마음을 안정시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 길은 원래 출발한 곳으로 되돌아오고, 또 다른 한 길은 교직원 복지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하우스 반대편으로 나오면 교직원 복지관으로 가는 도로가 보이는데, 쪽 뺨은 한적한 도로와 가늘어 되면 노랗게 물들 은행나무들 아래로 걷다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직원 복지관 앞의 도로는 주말이 되면 웨딩촬영을 온 신혼부부들을 가끔씩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평생을 함께 지낼 그들에게 아름다운 산책길은 날개를 달아준 것처럼 보였습니다.

총 소요 시간은 약 30분 정도의 짧은 코스로 굳이 운동화를 신지 않아도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산책길입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소화를 시키기 위해 최적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저기 풍기는 소나무 향은 해소했던 식욕을 다시 불러 일으킵니다.



▲권제오름 산책길 중간 지점에 도달하면 뽕뽕히 펼쳐져 있는 소나무들의 향이 반긴다.

◀엄지손가락 크기가 채 안되는 셋노랑고 작은 꽃이 포근한 봄을 알리고 있다.

◇내 맘대로 평가
난이도 : ★★
소요시간 : ★★
추천하는 요일 : 한가한 수요일 점심
학생 리뷰 : 친구와 같이 단체로 오는 것보다 혼자 사색하며 걸을 때 훨씬 좋아요(김정민 무역학과 1)

<2> 제주 별빛누리공원

위치는 산천단 버스 정류장에서 시내 방향으로 5분 정도 내려오다 보면 왼쪽에 간판이 보입니다. 거기서 도로를 따라 10분정도 올라가야 합니다. 공원의 산 중턱이란 위치적 특성 때문에 오르막길을 오르는데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도로를 따라 오르다 보면 주차장이 보이고 나무로 된 계단을 올라가면 공원이 나타납니다.

정상에 오르면 제주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탁 트인 시야가 인상적입니다. 해가 진후에는 별빛누리공원답게 하늘에

수놓인 무수히 많은 별들을 구경할 수 있어서 잔디밭에 가만히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별뿔별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하늘을 구경하는 재미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누워 있다 한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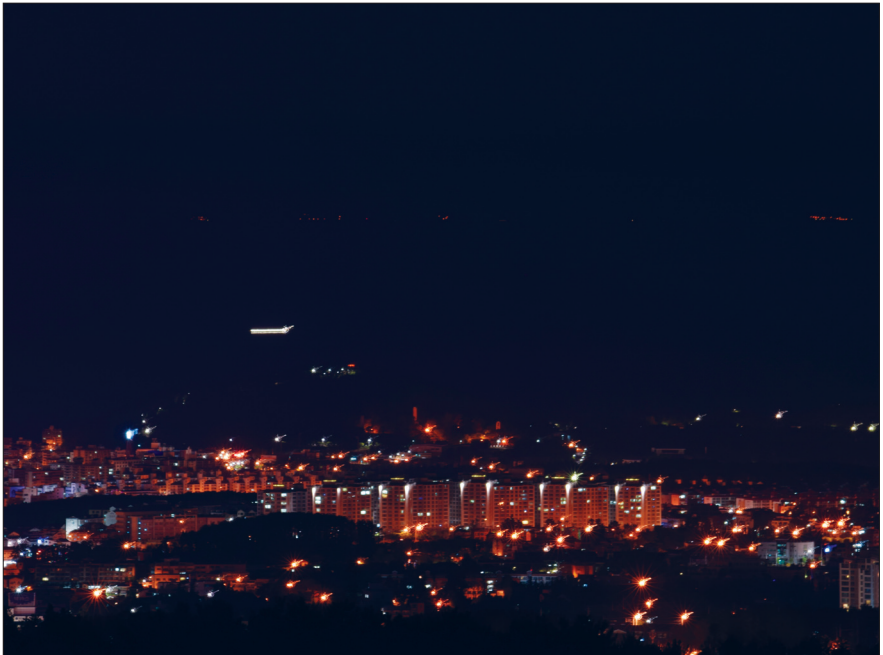
가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조사를 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날의 일기예보를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 계획 없이 올라갔다면 구름이 많이 끼어있을 경우에는 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힘들게 올라가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따뜻한 겉옷 챙기기입니다. 공원이 산 중턱에 있기 때문에 한여름에도 산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때문에 장시간 머무를 때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길을 밝힐 수 있는 손전등을 가져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올라가다 보면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는데 안전을 위해 등을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공원의 색다른 장점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별을 구경하거나 시내 야경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이곳만의 매력입니다. 글/사진=김선혁 수습기자



▲별빛누리공원에 위치한 관측소와 전시실 위에서는 적지 않은 별들이 빛나고 있다.

◀관측소 정문 앞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아라동의 은은한 야경.

◇내 맘대로 평가
난이도 : ★★★★★
소요시간 : ★★★★★
추천하는 요일 : 무료한 일요일 밤
학생 리뷰 : 도심 속 화려한 야경과는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한상민 회계학과 1)

제주대학교 대학원 풍력공학부에서 우수인재를 선발합니다.

풍력발전분야의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제주대학교 대학원 풍력공학부에서 2015학년도 후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모집인원	▪ 석사과정 00명, 박사과정 0명 (특별전형)	면접시험	▪ 면접고사: 2015. 06. 12.(화) 10:00 ~
모집학과	▪ 석사과정 : 풍력공학부(풍력기계시스템전공, 풍력전기·제어 시스템전공, 풍력해양·토목공학전공) 3개 전공 ▪ 박사과정 : 풍력특성화협동과정	특 전	▪ 석사과정 월 70만원, 박사과정 월 100만원 장학금 지원(Full Time) ▪ 우수 대학원생에게 해외 우수대학 학점교류 비용 지원 (유럽 : 알보그대학(덴마크), 델프트공대(네덜란드), 러프버러대학(영국) / 일본 : 아시카가 공대 등) ▪ 우수 대학원생에게 해외·국내 인턴십 비용 지원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선급,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네덜란드 ECN, 독일 Lahmeyer, 영국 Lomax 등) ▪ 국·내외 학술대회참가 및 논문발표 지원 ※ 위 지원금은 풍력공학부 내규에 따라 지급되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 자격	▪ 전공제한 없음(이공계열·인문사회계열 등) ▪ 인문계 : TOEIC 700점에 상응하는 영어능력 자연계 : TOEIC 600점에 상응하는 영어능력	졸업 후 진로	▪ 한국남부발전(주), 제주에너지공사, 대림산업, 효성중공업, 대한전선(주), 한국선급 등 국내 대기업 및 국가 공기업 (석·박사 졸업생 취업 자료에 근거함)
원서접수	▪ 2015. 05. 26.(화) 10:00 ~ 05. 29.(금) 17:00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ibsi.jejunu.ac.kr) 입학원서 접수 대행사 (http://www.uwayapply.com)	선발방법	▪ 면접(면접 시 영어능력 구술 평가함)
		문의처	▪ 제주대학교 입학관리과 (064)754-3991 ▪ 대학원 풍력공학부 행정실 (064)754-4400 ▪ 홈페이지 : (http://gwe.jejunu.ac.kr)

